

일제시대 인천권변에 대한 연구

- ‘용동권변(龍洞券番)’을 중심으로 -

이승연* · 송지영**

이승연 · 송지영

I. 서론
II. 용동권변의 개요
III. 용동권변의 활동
IV. 용동권변 출신 예인
V. 결론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역사학의 지평이 넓어지면서 기존의 정치·사회사 중심의 역사쓰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보다 다양한 근현대사 주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역사적 주변부로 인식되어 왔던 문화예술 분야도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고 있다. 또 연구 주제 뿐만 아니라 역사 기술방식에 있어서도 질적·문화적 역사쓰기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기존의 역사연구에서는 한계가 있었던 개인과 집단의 구체적 모습을 보여주하고자 하는데 기인한다.¹⁾

1945년 해방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일제시대에 대한 연구는 식민정책사(植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구원

** KBS 아시아 인사이트팀 전문리서처

1) 곽차섭, 『미시사란 무엇인가』(푸른역사, 2000); 조한욱, 『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책세상, 2000)

民政策史) 위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일제시대의 문화연구는 한국의 근대 문화가 태동하는 시점의 특성과 본질을 설명함과 동시에 오늘날 문화의 다양한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하나의 단초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제시기 자료의 상당수가 식민지 시기와 한국전쟁 등 역사적 격변기를 겪으며 소실되었거나 보존상태가 부실하기 때문에 접근에 상당한 한계가 따르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권번 관련 선행연구²⁾와 문헌을 통해 볼 때 대체로 권번은 가장 일찍 타문화, 신문화를 받아들이는 곳이었고, 문화 변동의 중심지였다. 이는 인천지역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기에 권번 연구를 통해 인천의 예술사적 의미와 문화변동 과정을 관찰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였다. 인천은 서울이나 진주, 평양 등지에 비해 예술사적으로나 사회적 의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으며, 이는 권번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권번은 일부 부정적 인식으로 말미암아³⁾ 구체적 실상 및 출신 예인의 경험 등이 간과되거나 소외된 측면이 크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증언해줄 수 있는 당사자 및 관련 기록이 소멸되기 전에 시급히 밝혀지고 정리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⁴⁾

본 논문은 인천의 용동권번이 인천의 시대와 역사를 반영하는 문화의 산물임을 전제로 하여 용동권번이 설립되는 과정과 규모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른 지역의 권번과 비교하면서 예능 교육기관으로서의 용동권번의 교육 내용은 어떠하였는지, 당시 기생의 주요 활동무대였던 요릿집이나 공연장에서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기생과 지역 사회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였는지도 주목해보겠다.

이러한 연구는 인천지역 권번의 실체를 파악함과 동시에 인천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데도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된다.

2) 권도희(2001), 권행가(2001), 김영희(2003), 서지영(2003), 오현화(2004), 이경민(2005), 이재옥(2003), 장유정(2004) 등이 전통예술 연구 및 여성학·사회학 등의 측면에서 권번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

3) 신분적으로 천민에 해당하며 매춘과 관련된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뜻한다.

4)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 용동 163번지의 돌계단에는 '龍洞券番, 昭和 四年 六月 修築' 이라고 음각된 글자가 남아있어 이 일대가 권번지역이었음을 알리는 증거가 되고 있다. 돌계단과 글자는 세월의 풍파 속에서 깨지고 무디어져 정확히 알아보기 힘든 상태이다. 또 당시 권번에서 활동하던 사람과 관련자들, 주민들의 증언을 듣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채록이 필요한데 그 대상자들은 이미 작고하였거나 고령 등으로 대답에 한계가 따른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우리의 근현대사는 식민지 시대, 제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분단, 정치적 대립과 갈등 등 술한 굴곡을 겪어왔다. 격변의 상황 속에서 많은 자료들이 유실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삶을 구체적으로 대변하는 예술자료들은 온전히 정리·연구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권번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한 때 학문적 조명에 장애가 있었으나 최근 전통예술과 문화에 대한 연구가 강화되면서 권번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해지고 있다. 성기숙의 「일제강점기 권번과 기생의 전통춤 연구」, 송문숙의 「진주권번의 춤과 인물에 관한 고찰」, 장유정의 「20세기 초 기생제도 연구」, 송방송의 「경성방송국에 출연한 예기들의 공연활동」, 이재옥의 「1930년대 기생의 음악활동 고찰」 등이 그 대표적 연구 사례이다. 단행본으로 가와무라 미나토의 『말하는 꽃 ‘기생’』, 신현규의 『꽃을 잡고』, 이경민의 『기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김영희의 『개화기대중예술의 꽃, 기생』 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서울 중심의 권번 조사였으며, 지방 중에서는 경남, 전남, 평양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인천지역 권번은 간혹 그 존재 여부만이 단순히 언급되는 정도였다.

근래 들어 문화예술사적 기초자료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원로 예술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⁵⁾는 2003년부터 매년 예술계 각 분야의 원로들을 선별하여 구술을 통해 그들의 생애사를 채록하고 있다.⁶⁾ 이를 통해 김수악(金壽岳)⁷⁾, 김천흥(金千興)⁸⁾, 묵계월(墨桂月)⁹⁾, 반야월(半夜月)¹⁰⁾ 등이 권번에 대해 주요한 증언을 해주었다. 구술대상자가 워낙 고령이다보니 기억과 경험들이 심층적이지 못하며 증언이 단편적으로 표현되는 등의 일부 한계도 드러났다. 그러나 기존의 잡지·신문 인터뷰, 자서전 등의 내용에 비해 보다 입체적인 구술 증언이 확보되었다. 이들 역시

5) 구 문예진흥원. 문화예술 진흥기구.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한국 근현대 예술사 구술채록사업’을 통해 2007년 2월 현재까지 원로 예술인 91명에 대한 구술자료가 확보되었다.

7) 김수악(金壽岳, 1925~) : 주요무형문화재 제12호 ‘진주검무’ 기예능보유자. 경상남도도 무형문화재 제21호 ‘진주교방굿거리춤’ 기예능보유자.

8) 김천흥(金千興, 1909~) :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의 ‘해금(奚琴)’·‘일무(佾舞)’ 기예능보유자.

9) 묵계월(墨桂月, 1921~) :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명예보유자.

10) 반야월(半夜月, 1913~) : ‘울고넘는 박달재’, ‘단장의 미아리고개’, ‘소양강처녀’ 등의 가요 작사가.

『인천학 연구』 6(2007. 2)

인천지역 권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전통춤, 판소리, 창(唱) 등 그들이 사사한 예능교육의 내용과 전수 현황에 대한 증언을 통해 당시 권번에 대한 파악을 용이하게 하였다.

본 연구는 인천의 권번과 기생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문헌 중심의 사료 분석과 구술채록을 바탕으로 한 현장연구(field work),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접근할 계획이다. 문헌자료로 일제시대 당시의 『동아일보』, 『시대일보』, 『조선일보』, 『중외일보』 등의 신문, 『삼천리』, 『조광』 등의 잡지 기사 및 『朝鮮美人寶鑑』과 「藝壇一百人」¹¹⁾, 그 외에 기생 및 대중예술인들의 활동을 기록한 신문기사와 잡지,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일제시대 정부기록 등을 분석하겠다.

구술자료로써 현재 용동에 거주하는 주민, 인천 지역사에 해박한 인천토박이, 용동 큰우물제¹²⁾에 참석한 노인 및 예술인 등의 구술증언을 확보할 것이다. 그 외에 김수악, 김천홍, 반야월, 묵계월, 박녹주¹³⁾, 이난향¹⁴⁾ 등 원로 예술인이 남긴 인터뷰 자료 중 ‘권번’, 혹은 ‘인천’관련 증언을 참고하고자 한다.

II. 용동권번의 개요

1. 설립과 역사

권번(券番)은 조선시대에 기생을 총괄하던 기생청(妓生廳)¹⁵⁾의 후신이라 할 수 있다. 권번이란 명칭 이외에 검번(檢番) 또는 권반(券班)이라고도 불렀다.¹⁶⁾ 조선에는 원래 관기제도(官妓制度) 외에는 공창제도라는 것이 없었으나, 한일합병 후 일본인이 들어온 도쿠가와(德川) 시대의 유곽제도를 1916년 3월 데라우치(寺內) 총독이 공창제도로 공포했다. 그 일환으로 기생도 허가

11) 青柳網太郎, 『朝鮮美人寶鑑』(朝鮮研究會, 1918)은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藝壇一百人」은 1914년 1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매일신보』에 연재된 특집 기획기사이다.

12) 용동 큰 우물(인천광역시 민속자료 지정문화재 제2호)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 상인들이 어우러지는 지역축제.

13) 박녹주(朴綠珠, 1906~1979) :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예능보유자.

14) 이난향(李蘭香, 1900~1979) : 국악 명창.

15) 기생을 관장하고 교육을 맡아보던 기관. 기생을 관장하고 교육을 맡아보던 기관. 가무(歌舞) 등 기생이 갖추어야 할 기본 기예와 행의(行儀)·시·서화(書畵) 등을 가르쳐, 상류 고관이나 유생(儒生)들의 집대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 두산동아 백과사전 ‘기생청’

16) 두산동아 백과사전 ‘권번’

제가 되어 권번에 기적을 두고 세금을 내도록 했다. 권번은 동기(童妓)에게 노래와 춤을 가르쳐 기생을 양성하는 한편 기생들의 요정 출입을 지휘하고 화대를 받아주는 중간역할을 담당했다. 서울에는 한성권번·대동권번·한남권번·조선권번이, 평양에는 기성권번 등이 있었고, 그밖에 부산·대구·함흥·진주 등에도 각각 권번이 있었다. 권번의 필수과목에는 조선음악·무도·조선예법과 일본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권번은 해방 후 1947년 10월 14일자 과도정부 법률 제7호에 의해 공창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철폐되었다.¹⁷⁾

朴漢英等 三十餘人이 發起호야 漢城內 妓生營業을 組合호야 風俗을 改良호기로 目的호고 規則을 製定호야 警廳에 請願호았다더라.¹⁸⁾

권번은 원래 일본 게이샤들의, 소위 포주업자들의 조합식 조직이었는데, 우리나라에 기생을 본격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한다.¹⁹⁾

1908년 관기제도가 전부 폐지되고 인천에 권번이 등장하던 시점이 용동권번의 기원으로 추정되는데 언제 설립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료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1912년 『매일신보』에 ‘인천용동기생조합소(仁川龍洞妓生組合所)’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관기제도 폐지 이후에는 용동기생조합소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인천용동기생조합소에서는 근일에 영업이 부산하여 오는 30일이나 혹은 그 이튿날부터 인천축항사를 빌려 연극을 한다는데. 그 연극은 하여 보충이 될는지 몰라. 공론이 분등하다더라. (인천지국)²⁰⁾

용동권번이라는 이름은 현재 남아있는 인천시 중구 동인천동 주택가의 돌계단²¹⁾의 ‘龍洞券番 昭和 四年 六月 修築’을 통해 적어도 1929년(쇼와 4년) 6월 이전부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7) 브리टे니커 백과사전 ‘권번’.

18)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편, 『한국여성관계자료집 근대편(하)』,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0).

19) 가와무라 미나토 지음, 유재순 옮김, 『말하는 꽃 ‘기생’』 (서울: 소담출판사, 2000)

20) 『매일신보』 1912년 6월 28일자.

21) 계단은 크게 두 단으로 나누어져 있다. 龍洞券番이라고 적힌 아랫단은 가로 1m 79cm, 세로 15cm 정도이며, ‘龍洞券番 昭和 四年 六月 修築’이라고 적힌 윗 단은 가로 1m 90cm, 세로 16cm이다.



<사진 1>
용동권번터의 계단
중 일부 : 龍洞券番
이라는 네 글자가
보인다.

1929년 이전 자료로써 1925년 11월 18일 『시대일보』에 용동권번 낙성식(落成式) 축하연을 알리는 기사가 나오고, 같은 해 7월 24일자에는 권번 기생들이 총출동하여 수재의연품을 전달하는 기사가 나온다. 이로 볼 때 구체적인 흔적은 남아있지 않지만 1925년 이전에 설립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조선일보』 1923년 2월 14일자에 용동 기생들이 물산장려운동에 참여했던 내용이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용동권번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용동권번의 전신이라고 보고 있는²²⁾ 소성권번은 1901년 5월에 정식 허가를 받았다고 전한다.²³⁾

인천부 용리에 있는 용동권번은 그동안 권번을 개축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활동하여 그 기금을 저축해야오든 바 금야에 낙성회를 열어 각 유지의 협조도 잇섯슴으로 이를 기본으로 하고 개축하여 2층 양옥의 광대한 건물을 신축하여 오든바 축시에 낙성하얏슴으로 거 십오일부터 십칠일까지 삼일에 걸쳐 자축 낙성연을 베푸렀는데 연회초일에는 관공서급 신문기자를 초대하얏으며 그 외 이일간은 부내 유지 ○○○하야 성대한 연회를 하얏다는 바 초일에는 한성인(韓聖仁) 조합장의 인사로 인천부윤의 답사가 있었다고 한다.²⁴⁾

『시대일보』는 기사를 통해 용동권번이 용리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조선은행회사조합자료』에

22) 이 부분에서는 의문점이 든다. 1932년 4월 14일 『중앙일보』, 같은 해 11월 19일 『동아일보』에 소성권번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오지만 당시 다른 신문기사에서 용동권번이라는 말도 쓰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23) 인천 역사관련 문헌들은 1901년 5월 정식 허가를 받았다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권번이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문헌들조차 1차 자료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본 연구팀도 구체적인 자료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24) 『시대일보』 1925년 11월 14일자.

서 용동권변의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1935년 인천부 용리 171번지에 인화권변이 설립되었고, 1938년 인천부 용운정 90-4에 인천권변이 설립된다는 기록이 있다.²⁵⁾ 인화권변이 인천권변으로 재조직된 것은 1938년 2월 10일자 『동아일보』에 ‘인화권변을 폐지코 인천권변을 설치’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다. 1937년 10월 20일자 『동아일보』는 인화권변 조합장과 조합서기가 기생들의 시간비를 주지 않아 경찰의 조사를 받았으며, 기생들이 경찰서에서 자신들이 받아내야 하는 돈을 계산하고 있는 진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인천의 조선인 측 기생 60여 명의 생명선을 장악한 인화권변에 모종의 혐의가 농후하여 조합서기장과 조합간부들이 속속 소환되어 취조를 받았다함은 일반주지의 사실이거니와 그 후 동서에서는 사건을 일체 비밀에 부치어 자세한 내막을 숨기고 있으나 탐문한 바에 의하면 그동안 기생들이 찾아야 할 시간대를 연속 2차나 지불하지 않았다 하여 19일 조조부터는 인천서 사법실 한 모퉁이에 보기만 하여도 색채가 영농한 기생들이 벌려있고 시간대 수입전표를 주판질하고 잇는 풍경은 보는 자로 하여금 마치 권변 회계실 같은 느낌을 갖게 하였다 한다.

이후에도 신문은 계속해서 수사를 보도하고 있다. 결국 그해 11월 16일 조합장 김병근과 중역 김모 씨가 배임횡령 판결을 받게 되나 사건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데다가 1천 원씩 벌금을 내면 풀어질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듬해 2월 10일 부정사건이 많은 인화권변을 폐지하고 인천권변으로 한다는 보도와 2월 15일 창립총회 개최(개최일은 12일) 기사가 등장한다.

그러나 용동권변이 인화권변으로 되었다는 기록은 명확치 않다. 1928년 『별건곤』에는 미두(米豆)꾼이 적어져서 기생집 경기가 좋지 않음을 알리는 기사가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용동권변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인화권변으로 바뀐 것이 아닐까 추정할 수 있다.

米豆로 날이 밝아 米豆로 날이 짙은다는 인천. 그 인천에 풋내기 米豆꾼이 쭉 빠져노아서 지금의 인천은 물이 쭉 빠졌다. 一攫千金을 꿈꾸는 열빠진 부자 자식도 이제는 種子가 끄너질 만큼 되엇거니와 한편으로는 피도 생길 만큼 되어서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만 남은 까닭으로 여관에 묵거나 쉼

25) 『동아일보』 1938년 3월 24일자에 따르면, 1937년 당시 인화권변은 조선인 기생들이 적을 두었고, 일본 내지(内地)인 기생들이 적을 둔 곳은 인천권변이라고 했다. 1941년 경기도고등경찰이 발송한 문서(京高秘 제141호의 3 “國民總力運動에 따른 民情에 관한 건”)에 따르면 인천권변과, 인천조선인권변으로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인화권변은 인천조선인권변으로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인천학 연구』 6(2007. 2)

돈 쓰는 사람이 적어진 까닭이다.

썰돈 쓰는 米豆꾼이 적어지닛가 갈보집이 거의 반이나 조라들고 여관, 요리 집, 기생집은 적어지지는 안엇서도 날마다 파리를 날닌다. 불 업는 火爐 가티 宿客 업는 여관 가티 엇더케 쓸쓸한지 이럴 줄 모르고 내려왓스니 探查記 쓸 나(記者)도 자칫하면 파리를 날니게 생겜다.²⁶⁾

즉, 용동권변은 인천지역의 관기제도가 폐지된 이후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 용동기생조합 → 용동권변(소성권변) → 인화권변 → 인천권변 나. 소성권변 → 용동기생조합 → 용동권변 → 인화권변 → 인천권변

1932년도 신문기사²⁷⁾에서 볼 수 있는 소성권변이라는 명칭은 단지 과거 사용하던 언어의 잔재이거나, 혹은 ‘가’의 경우에서처럼 당시 용동권변과 소성권변이란 명칭이 혼용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2. 규모

용동권변의 인원 및 재정 규모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체적인 문헌 자료 및 연구 성과는 찾을 수 없었다. 인천지역 권변에 대한 1차 자료와 증언이 희박하다보니 본 논문에서는 해당 시기 신문·잡지기사와 총독부자료 등을 수집하여 그 규모를 재구성하고자 했다. 권변에 관한 기존 연구 대부분이 당시의 신문, 잡지의 기사를 분석하고 총독부 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하였지만 그것만으로 구체적인 규모를 그려내기 어렵다. 이는 민간 담론, 증언 채록, 2차 문헌 분석 등 좀 더 다면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1925년 용동권변이 낙성식을 가진 무렵, 조선총독부경무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기생 수는 8,304명이다. 1925년 8월말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인이 3,413명, 일본인²⁸⁾이 4,891명이다. 한국인의 경우 출신도별로 보면 경남

26) “仁川, 米豆나라 仁川の 밤 世上” 「本支社記者 五大都市 暗夜 大探查記」 『별건곤』 1928, 8, 1.

27) 『중앙일보』 1932년 4월 14일자, 『동아일보』 1932년 11월 19일자에 소성권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온다.

28) 임종국(2004)에 따르면 일본인 기생의 기원은 1895년 5월 일본이 인천에 입항할 때부터로 보고 있다. 교통비 등 여비를 무시할 수 없어서 가족을 동반치 않고 입항한 일본인 남성들은 여성의 수요를 필요로 했다. 청일전쟁 무렵에는 호박이라도 치마만 들렀다고 하면 시세부터 뛰어올라 아마쿠사(天草島) 여성들이 조선으로 밀항하여 활동하였다 한다. 정식 게이샤는 1888년 마쓰이(松井)가 데려왔다는 후구스케(福助)라는 여자 단 한명이 있었다.

1,139명, 경기도 626명, 평남 469명, 충북 11명, 강원도 12명이었다. 무학자(無學者)가 2,780명으로 80%에 달하였다.²⁹⁾

1926년 11월 17일자 『동아일보』는 영화보통학교 운동장 확장마련을 위한 공사를 위해 용동예기생 30여 명이 총출동했다고 적고 있다. 1930년 10월 14일자 『동아일보』에는 ‘인천기생연주대회(仁川妓生演奏大會)’라는 제목 하의 기사에 용동권번기생 40여 명이 총출동하였다고 했다. 1931년 인천에는 일본 예기 33명, 한국기생 77명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로 미루어 인천 용동권번에는 약 40~50명 내외의 기생들이 활동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930년 12월 7일자 동아일보에는 ‘권번에 부정사건’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기생조합비를 횡령한 조합의 간부들이 검찰에 기소되어 조사 받는 내용의 기사였다. 이 기사를 통해서 기생 이외에도 조합장, 재무, 서기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생들의 수입은 시대별, 지역별, 개인별로 달랐다. 1920년대 중반 기생의 평균 월수입은 35~40원 정도였으나 3원을 버는 기생 또한 있었다.³⁰⁾ 1927년 총독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7,000여 명의 기생, 창기, 작부가 진 빚이 자그마치 725만 6,000원이었다. 일본인 창기는 1인당 1,730원, 조선인 창기는 410원, 기생은 376원이었다.³¹⁾

1920년 6월 9일자 『동아일보』를 보면 1920년 경성의 기생 시간비(間費)는 1시간 당 평균 1원 30전이였다. 1933년 『동아일보』 3월 24일자 ‘기생세 개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그동안 4원씩 받던 기생세를 일본인과 조선인이 영업수입이 다른 것을 참작하여 일본인은 4원, 조선인은 3원으로 받기로 하려는 내용을 실고 있다. 용동권번 기생들이 구체적으로 얼마의 화대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국의 화대가 비슷한 수준임을 감안하면 대략의 규모가 추측가능하다.

1932년 『제1선』의 「도시의 생활전선」이라는 설문조사 기록에 따르면 기생의 수입은 시간당 1~1.2원, 화대가 200~300원으로 다른 직업과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³²⁾

29) 『동아일보』 1925년 8월 30일자.

30) 『동아일보』 1929년 7월 3일자 참조.

31) 정선영, 「일제하 조선 내 공창제 도입과 매매춘」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32쪽.

32) 신현규, 『꽃을 잡고』 (서울: 경덕출판사, 2006) 41-42쪽에서 재인용.

(단위 : 원)
[하루수입]
카페여급: 5.6
버스걸: 0.74, 여점원: 0.7, 슝 트는 일: 0.7
막노동: 0.5, 신발수리공: 0.5
냉면배달: 0.3
[한달 수입]
은행원(보너스 포함): 70, 여교사: 45

1938년 『삼천리』의 「기밀실」에도 기생수입이 다른 데보다 많다는 기록이 있다.³³⁾ 1938년 『동아일보』 2월 10일자에는 인천지역 기생의 수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13만 8천원 작년의 인천기생 화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보면 1937년 당시 인천부에는 100명의 기생이 있었고, 이중 조선인 기생은 인화권번 소속으로 73명이었다. 7만 8,532전으로 1인당 1천여 원의 수입이 기록되어 있다. 일본 내지인 기생 27명이 소속되어 있던 인천권번은 597만 3,690전의 수입을 기록했다. 1인 평균 연수입이 2천 9백여 원으로 조선인 수입의 약 3배가 됐다. 1936년 당시 쌀값이 특등급 1kg에 25전, 1등급 1kg에 22전 5리임을 비교할 때 그 액수를 짐작할 수 있다.³⁴⁾

이렇듯 용동권번의 설립규모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현재 전하지 않지만, 『조선은행회사조합자료』에 따르면 인화권번의 설립 자본금은 5,500원, 인천권번의 설립 자본금은 5만원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경성의 대동권번(1920년 설립)이 10만원인 것에 비하면 작은 규모이지만 대구권번(1922년 설립) 3만원, 동래권번(1932년 설립) 5,000원, 달성권번(1927년 설립) 6,000원 등과 비교하면 작지 않은 규모이다.

3. 운영

당시 신문을 통해서 기생들이 자체 조직을 만들어 기생의 권익을 위한 집단행동을 한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기생의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33) 「기밀실」 『삼천리』 제10권 제10호 1938년 10월 1일.

34) 『동아일보』 1936년 7월 29일자 참조.

항의, 금전적 문제로 요릿집과 권변과의 충돌, 정부의 세금이나 위생검사에 대한 반발 등을 보면 기생들의 집단적 대응양상을 가늠할 수 있다.³⁵⁾ 이는 자체적으로 규약이 있었에 가능한 일이었다. 명창 고(故) 이난향의 회고에서 당시 기생 사회의 위계적 구조를 볼 수 있다.

대정권변은 우리나라 최초의 규약을 만들었다. 최고 우두머리를 일변수라 불렀고, 일변수 밑에 이번수 삼변수가 있었고, 그 다음은 나이와 연조에 따라 선후배의 위계질서가 정연했다.³⁶⁾

1913년 형성된 대정권변은 조합 내부에 조합원들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자치규약을 만들었음을 보여준다. 권변 안에서 기생들 간의 위계질서는 매우 엄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대정권변에서의 ‘삭회(朔會)’의 현장이 이를 설명한다. 요릿집에서의 개별 기생들의 행실과 처신에 대해 삭회에서 이뤄지는 의결사항은 대단한 영향력과 권위를 지닌다.³⁷⁾

용동권변도 자체적으로 삭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주요 사안을 의결하고 실천하였다. 『조선일보』 1923년 2월 14일자에는 당시 전국에 걸쳐 대대적으로 일어난 토산장려운동에 용동권변 기생들도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십오일 동조합의 삭회를 개최하는 날인데 그날 회를 파하고 동 조합 취테역 김경란 부취테역 손향심 총무 최앵무³⁸⁾ 등 열다섯 명 기생이 모뎌여 주창하기를, 우리도 사회 일분자된 책임이 업지 안이한 즉 조선에서 생산되는 포목으로 의복을 지어 입기로 일심단결하자하고 그 잇흔날부터 일제히 한양목으로 치마를 지어입었는데, 이와 갖치 단합이 된 것은 조합장의 권면도 안이요 다만 그 기생들의 자발덕 정신과 분발덕 사상으로 결의가 된 것이라 하며... [하략]

인화권변의 기생들이 파업을 벌이고 인천 일대 요릿집의 업무를 마비시킨 사건을 통해 당시 기생들에게도 주체성과 자발성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35) 서지영, 「식민지 시대 기생 연구(2) - ‘기생조합’의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권,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6) 451쪽.

36) 이난향, ‘명월관’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중앙일보』 1971년 1월 6일자

37) 이난향, 앞의 글, 『중앙일보』 1971년 1월 7일자.

38) 기생 최앵무는 기생 김부용과 함께 조합장 아들과 그의 친구와 함께 금광루에서 술을 마시고 방을 빌려 동침하였는데 이후 시간비 흥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금광루 주인과 싸움이 났다. 얼마 후 조합장이 이 사실을 알고 최앵무와 김부용은 제명되고, 조합장 이하 간부가 사직하였다. 『조선일보』 1920년 12월 13일자 기사 참고.

『인천학 연구』 6(2007. 2)

화대책임 안 지면 요리점 안 가겠소. 인천기생결속대항

인천 용동권변 기생일동은 지난 1일부터 일제이 결속을 하고 조선인측 료리덤에는 가지안키로 동맹하였다는 그 원인은 지난 1일에 인천 조선인 측 료리덤이 협의를 하기를 종래에는 손이 외상을 만히 먹는 까닭으로 외상갑을 받지 못하드라도 기생의 화대는 반듯이 지불치 아니하면 아니되었습으로 종금 이후로는 기생의 화대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질 수 업다는 결의를 하고 전권변에 통지를 하였습으로 기생의 주장은 료리덤에서 화대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 우리도 료리덤에는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기생측의 주장은 “우리는 결코 무리한 일이 아니올시다. 료리덤에서 화대를 책임을지지 아니진즉 어떤 손님이 부르든지 외상이라고 안가고 현금이라고 가는 일은 할 수가 업습니다”라고 하며 요리덤측의 말은 우리는 음식도 외상으로 먹이고 기생의 화대까지 물어놓을 수는 업스니까 불가불명업을 유지하려고 그러한 것이 올시다라고 하더라.³⁹⁾

그 밖에도 인천의 기생들은 세금과 임금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과 주장을 펼치는 근대적 시민이자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성격도 보여줬다.⁴⁰⁾

Ⅲ. 용동권변의 활동

1. 예능교육

일제시대 권변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전통예능교육의 산실이었다는 점이다. 조선권변의 경우 성악으로 여창가곡, 가사, 시조, 남도소리, 서도소리, 경기12잡가, 잡가 등을 가르쳤고 악기로는 가야금, 거문고, 양금, 장고 등을 가르쳤다. 또 춤은 궁중무용과 민속무용을 망라해 가르쳤고, 그밖에 서양댄스를 비롯하여 서화(書畵)를 가르쳤다. 기생으로써 갖추어야 할 기예능은 물론 일반교양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내용으로 짜여져 있었다.⁴¹⁾ 이난향은 자신의 회고에서 권변은 교육기관임에 틀림없지만 예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9) 『중외일보』 1927년 8월 4일자.

40) 『매일신보』 1930년 2월 21일자에 인천 용동권변 기생 30여명이 불경기로 생활이 극난하니 영업세 4원을 반감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기생들의 단체 행동이 기생들의 자발적 의지 및 의식에 따른 것인지, 혹은 권변 대표나 사무원과의 협의에 따른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41) 성기숙, 「일제강점기 권변과 기생의 전통춤 연구」 『한국민속학회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서울: 고려대학교, 2001) 4쪽 참조.

팔 기운이 있음직한 뼈대 굵은 기생들은 주로 거문고를 배웠고, 몸이 가냘픈 측은 양금을 익히고, 가야금은 누구나 할 수 있었다. 노래는 우선 목이 터야 했는데 노래를 부르는 수창기생이 되려면 담이 크고 침착해야 했다. 대개 노래는 우조 6가지, 계면 6가지, 편 1~2가지, 춤은 춘향무·장생보연지무·무고·사고무·무산향 등을 익히면 어느 정도 기초수업은 끝나는 것이었다.

권번에 이름을 올린 모든 기생이 의무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니었고 출석제도 없어 게으른 측들에게는 편리했으나 후에 명기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아뿔튼 나는 하선생님 밑에서 열심히 공부한 덕으로 하선생님께서 “이 집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가끔 칭찬해 주셨다.⁴²⁾

권번은 기생들의 요리점 출입을 지휘해 화대를 받아주는 중계자이자 4~5년 동안 가무를 가르쳐 기생을 키워내는 학교였다.⁴³⁾ 진주권번에서 수학했던 인간문화재 김수악의 구술자료를 살펴보자. 김수악은 면담 시작부터 권번에 대한 인식을 바로 알려주고 싶다는 목적을 밝히고 있으며, 진주권번에 대한 회고에서도 교육기관으로서의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 : 선생님, 저기 권번, 권번에 들어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김 : 권번이라는 기 내나 인자 그 국악학교 {학교쥬} 예술학교쥬. 아주 엄했지. 지금 학교, 대학이 문제가 아이라 {그렁쥬} 걸음도 제대로 못 걷기로 하고, 옆에, 길을 가다 그냥 옆에 해딱해딱 먼 들도 못 봐, 앞길만 딱 보고 가야 되고, 뭐 좋은 거 있어도 배고파도 사 목도 못 하고 그냥 [쫄랑쫄랑].

이 : 고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따로 계세요?

김 : 뭐, 선생님 마중.

이 : 다 고롭게 가르치세요?

김 : 그러지 마, 아주 엄격하지, 마.

이 : 그 학교에 들어가시면 이제 학교에 기숙사 생활을 하시나요, 아니면 집에서 왔다갔다 하시나요?

김 : 집에서 왔다갔다 하지. {집에서 왔다갔다} 집에서. 기숙사 없고 {선생님 그때 땡기머리?} 창 배우는 데, 무용 배우는 데, 기악 배우는 데, 글 배우는 데, 시조 그 뭐 다 따로, {따로따로} 큰 학교, 인자 방방이⁴⁴⁾ 모도, 교실이 따로 있고, 인자 옛날 고가(古家)가 큰 고가가 두 채가 이래, 그 학교로 있거든. 그래놓니까 엄격하지 뭐.⁴⁵⁾

42) 이난향, ‘명월관’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중앙일보』 1971년 1월 6일자.

43) 송연옥, 「대한제국기의 ‘기생 단속령’ ‘창기 단속령’ : 일제 식민화와 공창제 도입의 준비과정」 『한국사론』 (서울: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8) 64쪽.

44) ‘방방이’의 잘못. ‘방마다’의 뜻.

45) 이숙희, 『한국근현대 예술사 구술채록연구시리즈 김수악』 (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4) 73쪽.

『인천학 연구』 6(2007. 2)

원로 대중음악가인 반야월도 권변을 교육기관이라고 정의내렸다.

서울에 조선권변, 한성권변, 종로권변. 그래 있었는데 그 권변에서는 어어어 사, 사군자(四君子) 치는 것도 묵화(墨畵) 치는 것도 다 배워주고. 어 예의범절. 거 기생합습니다. 권변이란 게 학교.⁴⁶⁾

인천 기생 역시 ‘인천기생조합’에서 어린 시절부터 기생공부를 했다. 권변에서는 노래와 춤을 가르쳤는데, 평양의 기생학교만은 못 했다고 하지만 선생을 앓히고 가르쳤다. 인천 기생의 수준은 서울보다 낮고, 개성보다는 높았다. 개성은 갑, 을 2종이었으나, 인천에는 ‘을중’이 없었다. 그 옛날의 관기보다는 신세대에 속했고, 카페나 ‘빠(Bar)’ 종사자보다는 틀이 잡힌 예술가였다.⁴⁷⁾

조선권변의 경우 한창 번성기에는 학습기생만 80여 명에 달할 정도였다고 한다. 기생선발은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200여 명 정도가 응시하면 100여 명만이 합격할 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했다. 빼어난 용모를 지닌 기생 지방생들도 많았다고 한다.⁴⁸⁾

株式會社 漢城券番 부속 妓生學校가 認可되다. 妓生學校는 普通科(2年) 本科(1年) 專修科(1年)가 있으며 입학년령은 12歲며 5月 初에 開校할 계획이다.⁴⁹⁾

용동권변의 교육과정은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는다. 당시 각 지역별로 권변의 예능교육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개 지향점은 비슷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1932년 11월 19일자 ‘仁川第二公普 設立費로 소성권변운습회(邵城券番溫習會)’ 제하의 기사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용동권변도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 제2공립보통학교 설치 재원이 부족함에 감하여 인천소성권변 기생까지 출동하게 되었다. 인천소성권변에서는 인천 제2공립보통학교 설치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월 19일 20일, 21일 3일간 인천 외리(外里) 애관(愛館)⁵⁰⁾에 가무온습회를 개최한다고 한다.⁵¹⁾

46) 이영미, 『한국근현대 예술사 구술채록연구시리즈 반야월』 (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5) 259쪽.

47) 고일, 『인천석금(仁川昔今)』 (경기문화사, 1955).

48) 성기숙, 「일제강점기 권변과 기생의 전통춤 연구」 『한국민속학회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서울: 고려대학교, 2001) 3쪽 참조.

49) 『동아일보』 1938년 4월 17일자.

50) 인천시 중구 경동(옛 명칭 싸리고개)에 1895년 정치국이 설립한 인천 협률사(協律舍)가 전신이다. 한 때 축항사로 불리기도 했으며 1926년(일설에는 1924년 또는 1915년)부터 애관으로 불렸다. 애관이 된 이후부터 연극과 영화 상설관으로 운영되었다. 한국전쟁 중 소실되었다가 1960년 재건축되었다.

51) 『동아일보』 1932년 11월 19일자.

당시 전국적으로 권변의 예기들은 정기적이진 않지만 온습회⁵²⁾를 통해서 자신들의 가무를 대중들에게 교육시키곤 했다.

『조선미인보감』 서문에 열거된 권변 기생들의 학습내용을 보면 춤에는 장삼무, 승무, 입무, 남무, 검무, 춘앵무, 무산향, 남부바지, 남중속무(살풀이춤), 정재무, 서양무도, 내지무 등이 있었고 노래에는 각종 잡가, 입창, 좌창, 가야금, 현금, 양금 등이 있었다. 그 외 국어, 한문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⁵³⁾

<표 1> 일제시대 전국 권변의 교습 내용

권변	강습 내용	주요 스승
조선 (대정)	삼화권변 노래(歌), 가사, 시조, 서남잡가, 양금, 가야금, 검무, 승무, 정재 48종무를 비롯하여 서양무도와 내지무(內地舞)	하규일, 이병선, 한성준, 명완벽, 최정식, 주수봉, 황중순, 윤은석
한성		황중순, 장계춘
종로	-	-
광고	-	조산월
평양	시조, 가곡, 검무 예상우의무(霓裳羽衣舞) 금 : 양금, 가야금 한문 : 시문, 서, 행서, 해서 도서 : 사군자, 영모, 산수, 인물 일어 : 독본, 회화 등	김학선
황주	소리	이인주
광주	일본어, 한문, 예절(공통과목) 시조, 소리과, 기악과 춤과(선택과목)	임옥돌, 조동실, 박동실
진주	기본자세와 예절, 시조와 소리, 한문, 헌선도(獻仙桃), 포구락(抛毬樂), 무고(舞鼓), 선유락(船遊樂), 검무, 승무, 굿거리춤, 의암가무(義巖歌舞)	신고주, 김녹주, 김옥민, 최순이, 김백룡, 최창룡, 유성준, 최완자
달성	춤, 시조, 가곡, 창	박지홍, 박녹주, 임방울
정읍	판소리, 기악, 승무, 살풀이춤, 재담	정자선, 정정렬,
동래	-	강태홍
소화	단가, 승무, 검무, 화무, 포구락	김백룡, 도금선, 김창윤, 김준섭, 민옥행, 이기원
한남	남도소리가 중심. 가야금과 병창, 정재무와 승무, 검무	-
경화	가곡 및 경서잡가 중심. 정재무, 검무, 승무	-
수원	가사, 시조, 경서잡가, 정재무 등	-
목포	승무, 고법	이대조
기타	박동진(경주, 대구)	

(성기숙(2001), 정은경(2005), 김수악, 김천홍 구술자료 참조하여 재구성)

52) 신현규(2006)에 따르면 일제시대 권변은 ‘온습회’라는 명목으로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서 권변에서 갈고 닦은 기예의 실력을 발휘했다고 한다.

53) 靑柳網太郎, 『朝鮮美人寶鑑』 참조 [성기숙, 「일제강점기 권변과 기생의 전통춤 연구」 『한국민속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서울: 고려대학교, 2001) 5쪽 재인용].

2. 사회참여 활동

이능화는 『조선해어화사』에서 신라시대부터 기생이 존재했다고 하였다. 일제시대로 넘어오면서 기생의 활동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1920년대 관기제도가 폐지되고 지역마다 기생조합이 결성되고 각 고장의 유부기(有夫妓)들은 무부기(無夫妓)로서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된다. 개항과 함께 들어왔던 신문물을 기생들은 ‘신여성’이 누릴 수 있는 일종의 특권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된다.

초창기 기생이 남성중심 사회에서 주로 유흥장에서 흥을 돋우는 존재였다면, 일제시대 기생들은 신여성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사회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1907년 관기들의 경성고아원 경비 조달을 위한 기생연주회를 시작으로 지역학교의 신축 및 자금조달을 위한 기생들의 연주회가 파급되기 시작하였다.⁵⁴⁾ 1919년 안성(安城)에서 3월 11일 시위가 있던 이후 29일부터 31일에 이르는 동안 수백 내지 3천여 명이 모여 만세를 불렀다. 특히 31일에는 기생들이 주동이 되어 시민 3천여 명이 동원된 일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와 피검자가 발생했다. 수원(水原)에서는 3월 25일 이후부터 4월 4일까지 읍내를 비롯하여 송산(松山), 병점(餅店), 조산(鳥山) 등 수원군 내 각지에서 연이어 시위가 있었는데, 수백 명이 모였다. 특히 장날을 이용한 곳에서는 천여 명이 넘었다. 일본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10여 명이었으며 수백 명이 체포되었다. 29일 읍내 만세 운동 때는 기생 일동이 참가하였는데 기생 김향화(金香花)가 구속되었다.⁵⁵⁾

당시의 치안책임자 치바료(千葉了)는 『조선독립운동비화』에서 조선기생들이 얼마나 애국정신에 불타고 있는가를 고백하였다.⁵⁶⁾

1919년 9월 우리들이 처음으로 부임했을 때의 서울 화류계는 술이나 마시고 춤이나 추는 그런 놀아나기만 하는 눈치는 조금도 볼 수 없었다. 약 800명의 이 기생들은 화류계 여자라기보다 독립투사였다. 이 기생들의 뺨간 입술에서는 불꽃이 튀기고 놀러오는 조선청년들의 가슴속에 독립사상을 불러 일으켰

54) 성기숙, 「일제강점기 권변과 기생의 전통춤 연구」 『한국민속학회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서울: 고려대학교, 2001) 참조. 그 외에 구체적인 연결고리는 없지만 관기의 성격이 강한 한성기생조합의 고아원을 위한 연주회 관련 기사(1910년 4월 『대한매일』)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5) 국사편찬위원회, 『일제침략하 한국 36년사』, 4권. (毎日申報 1919.3. 7-31일자, 4.1-24일자, 高等警察關係年表 참조하여 재구성).

56) 정요섭, 『한국여성운동사』 (서울: 일조각, 1974) 92-93쪽 참조.

다. 화류계에 출입하는 조선청년치고 불온한 사상을 가지지 않은 자 없게 되고, 서울 시내 100여 군데 요정들은 어느덧 불온한 이들의 음모를 위한 소굴로 화하였다. 간혹 우리 일본인들이 기생집에 놀러가는 일이 있어도 그 태도는 냉랭하기가 얼음 같고, 이야기도 얹거니와 웃지도 않는다. 더구나 노래와 춤을 칭해도 바라보지도 않는다. 잔을 내밀면 묵묵히 술을 따를 뿐 때가 되면 묵묵히 사라지고 만다. 그 분위기가말로 유명들이 저승에서 술을 마시는 기분이다. 독립만세 후의 서울 장안 화류계는 이처럼 불온했고, 험악한 공기는 이리하여 더욱 조성되었다. 총독부가 아무리 좋은 정치를 하고 군대와 경찰이 아무리 호령을 해도 사회의 이면에 이와 같은 불온한 소굴이 남아 있는 한 조선사회의 치안유지는 성공될 듯싶지가 않다

1920년대를 전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던 민족주의적 사회운동에 기생들도 적극 참여하였다.⁵⁷⁾ 1930년대 구제공연 예술활동(재만조선동포구제, 수해구제) 사회경비보조 공연예술활동(학교설립기금 보조 등 교육경비관련 보조), 조선음악정화(조선음률협회 활동)·장려·부흥을 위한 활동(경연, 인기투표 등)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⁵⁸⁾

기생들은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회적 기능도 수행하였다. 1897년 1월 인천 상봉루(相鳳樓) 기생 9명은 90전의 돈을 모아 독립협회에 보냈다.⁵⁹⁾ 물산장려운동(1923년), 이재민돕기운동(1925년), 보통학교 운동장 확장비용 모금운동(1926년), 화재 피해자 돕기 자선연주(1929년) 등이 있었다. 1929년 4월 22일에는 당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대한독립 공명단⁶⁰⁾ 사건’ 관련 기사가 있었는데, 인천의 기생도 용의자에 올랐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⁶¹⁾

57) 서지영, 「식민지 시대 기생 연구(2) -“기생조합”의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권,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6) 449쪽.

58) 이재욱, 「1930년대 기생의 음악 활동 고찰」, 『한국음악사학보』 제30집 (한국음악사학회, 2003) 617-622쪽 참조 .

59) 「獨立協會補助金收入人名表」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 제4호』 1897, 1, 15.

60) 1926년 중국 산시 성[山西省] 타이위안부[太原府]에서 조직된 독립운동 단체.

최양옥(崔襄玉)을 단장으로 하고 이용화(李容華)·안창남(安昌南)·김정련(金正連) 등이 핵심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들은 국내 지단의 설치를 위해 공작하는 한편 1927년부터 비행사 안창남을 중심으로 비행단을 조직하려는 목적을 세우고, 그 소요자금 확보공작에 나섰다. 1929년 4월 20일 국내에 잠입한 최양옥 등은 춘천으로 향하는 총독부의 우편자동차를 마석에서 습격하여, 현금을 탈취하고 피신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뒤를 쫓아온 일본경찰에게 발각되어 양주 천마산에서 1주일간의 격전 끝에 체포됨으로써 조직이 와해되었다. 최양옥은 징역 10년, 김정련은 9년, 이선구는 6년씩의 언도를 받았는데, 이선구는 옥사하였다. 중국에 남아 있던 안창남도 그 후 비행기 사고로 죽었다(브리테니커 백과사전, ‘대한독립 공명단’).

61) 『동아일보』 1929년 4월 22일자.

<표 2> 용동권번의 사회참여활동을 보도한 주요 신문기사의 목록

보도일자	매체	주요 제목
1923년 2월 14일	조선일보	용동 기생들이 물산장려운동 및 민족주의 운동에 참여
1925년 7월 24일	시대일보	인천용동권번에서는 권번 전부가 출동하여 만흔 식료품 전반을 가지고 부친 전반을 순회하여 리재민에게 식료품을 분배하였다
1926년 11월 27일	동아일보	인천 용동권번 예기들이 영화보통학교 운동장 확장비용 마련 음악회 개최
1928년 9월 6일	동아일보	仁川妓生 타협, 요리집과 시간비 타협
1929년 5월 11일	중외일보	인천 造米 人夫, 絶火 참상, 2천여 명 생계 무료로, 龍洞 기생 자선연주
1932년 11월 19일	동아일보	인천제이공립보통학교로 설립비로 소성권번 운습회 개최
1934년 8월 12일	조선중앙일보	인천권번 기생들도 의연금 모집 활동, 흥등하에서 웃음 파는 그들의 이 가상한 독행!

3. 공연 예술 활동

기생들의 기방 밖 무대공연은 1902년 12월 4일에 개최된 협률사⁶²⁾의 ‘소춘대유희(笑春臺遊戯)’로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협률사의 공연은 기생과 삼패가 함께 무대에 섰던 거의 최초의 공식적인 공연이다.⁶³⁾ 일본에서 열리는 만국박람회에 기생을 보내고자 한 1910년 4월 14일 『대한매일』의 기사를 통해 정부에서도 기생을 일종의 공연예술자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62) 1902년 고종 재위 40년 경축 예식을 위해 한성부 야주현(지금의 광화문 새문안교회)에 있는 황실건물 일부를 터서 만들었으며, 2층 500석 규모였다. 전국의 유명한 판소리 명창과 가기(歌妓)·무동(舞童) 등 170여 명을 모아 전속단체를 조직한 뒤 이들에게 관급을 주었다. 그러나 경축 예식이 흉년 등의 이유로 다음해로 미루어지자 협률사는 상업극장으로 변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다. 1902년 12월 〈소춘대유희 笑春臺遊戯〉를 창립 공연했는데 이는 한국 최초의 유료 무대공연에 해당된다. 이후 판소리 5마당과 가기·무동의 춤과 노래를 공연했으며 가끔 경극(京劇)도 공연했다. 1903년 영화상영중 전기과열로 한동안 문을 닫았다가 대중의 요구로 다시 열었다. 이때 협률사 소관이 장봉환으로부터 김용제·최상돈·고희중 등에게로 넘어갔으며, 이들은 일본인 출자로 협률사를 대중의 연희장·사교장으로 운영하여 관료층의 분노를 샀다. 1906년 4월 17일 봉상시 부제조(奉常寺副提調) 이필화(李苾和)가 협률사 폐지를 바라는 상소문을 제출함으로써 3년 6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전속단원들이 협률사라는 이름의 극단으로 가끔 공연하다가 1914년경 자취를 감추었고, 이 건물은 1908년에 원각사 극장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브리테니카 백과사전 ‘협률사’).

63) 『황성신문』 1902년 8월 25일자.

우일봉으로 하야곰 기생조합소에 교섭하여 기생 팔명과 악공 육명을 불러 보내기로 계약하였는데 돈 일천오백환을 먼저주고 의복대금 이십환씩을 지불한다더라.⁶⁴⁾

「예단일백인」에 기록된 공연 레퍼토리를 춤, 노래, 악기에 따라서 나누면 다음과 같다.

- 춤: 남무, 입무, 검무, 정재춤, 춘향무, 춘앵무, 무산향, 승무, 항장무, 정자춤, 수포구락, 빈쾌무, 허튼춤, 무동의 춤, 각향춤, 각향정재, 정채춤.
- 노래: 가곡, 시조, 잡가, 소리, 놀량사거리, 수심가, 육자백이, 흥타령, 평양수심가, 차문주가, 황주난봉가, 판소리, 춘향가, 방자놀음, 방아타령, 심청가, 만수타령, 양산도, 간난봉가, 경북궁타령, 산타령, 개구리타령, 이도령놀음, 사랑가, 해주난봉가, 새타령, 불정사거리, 관산육마, 진주육자백이
- 악기: 가야금, 양금, 연금, 칠현금, 현금, 거문고, 역금, 탄금, 장고, 사미센⁶⁵⁾

인천 용동기생의 공연활동은 1910년 『대한매일』의 기생조합소 자체 운영비 마련을 위한 연극공연 소식에 처음 등장한다.

인천용동기생조합소(仁川龍洞妓生組合所)에서는 근일에 영업이 부산하여 오는 30일이나 혹은 그 이튿날부터 인천축항사(仁川築港社)를 빌려 연극을 하는데, 그 연극은 하여 보충이 될는지 몰라. 공론이 분등하다더라 (인천지국).⁶⁶⁾

다른 권번에 비해서 인천의 기생들은 특히 연극공연에 강한 특성을 가진 듯하다.⁶⁷⁾ 1924년 『동아일보』 기사에는 ‘제물포’ 청년회 연예극의 흥행을 기회로 청년 몇 명이 기생 몇 명과 함께 ‘인천청년극단’이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하던 중 관객들이 속은 것에 항의하는 사건이 있었다. 비록 기생들이

64) 『대한매일』 1910년 4월 14일자.

65) 오현화는 『예단일백인을 통해 본 기생집단의 성격』에서 매일신보 기사를 분석하여 이렇게 정리하고 당시 기생의 공연 레퍼토리가 궁중정재나 여악과 같은 왕실연회에서부터 민속연회와 삼패류의 레퍼토리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66) 『매일신보』 1912년 6월 28일자.

67) 인천이 연극공연으로 강한 곳이었기 때문에 실제 기적에 이름을 올렸던 복혜숙, 유신방 등 이외에도 원로 배우 황정순, 도금봉 등이 기적에 이름을 올렸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

『인천학 연구』 6(2007. 2)

자체적으로 연극공연을 한 것은 아니지만 타 지역 기생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다. 1920년대를 거치면서 기생들은 다양한 공연을 벌인다. 용동권번 기생들은 1926년 11월 27일에 영화보통학교 운동장 확장공사를 위해 운동장에서 직접 연주회를 열었으며 1928년에는 인천 애관에서 열린 활동사진대회에 찬조 출연하기도 했다.

때마침 국추가절(菊秋佳節)이오 본년 중 마지막으로 맑은 밤 가을빛을 자랑하는 달 맑은 밤을 이용해야 본사 인천지국은 두어 밤 인천 독자들 위안하기 위하여 23일과 24일 양일 밤을 두고 외리(外里) 애관에서 독자우대 활동사진대회(活動寫眞大會)를 개최하기로 되었다. 당일 밤 영사할 사진은 조선예술계의 걸작품인 청춘의 애화(哀話)를 자아내는 <락화류수(落花流水)> 라는 전11권과 서양사진으로 대환영을 받아오든 정희극(正喜劇) <미로(迷路)의 을녀(乙女)> 라는 전8권을 상연하기로 되었으며, <락화유수> 를 영사할 때에는 용동권번의 아리따운 두 예기의 창가가 있을 터인바 실로 조선사람으로서 제작한 <락화유수> 는 도처마다 대환영을 받는 영화이며 따라서 요금도 사오십전씩이나 받든 것이나 그러나 이번 대회에는 독자 계위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특별히 무료공개하기로 되었는데 다만 장내를 정돈하기 위하여 계하(階下) 십전 계상(階上) 이십 전의 입장료를 받기로 되었더라.⁶⁸⁾

이렇듯 용동권번의 공연 레퍼토리는 연극, 창가, 연주 등으로 다양하였으며 여러 무대에서 공연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접대부 역할 : 요릿집과 권번

권번이 가진 기능 중 하나는 기생들을 가입시켜놓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요릿집으로 보내주는 일종의 중개업자 역할이었다. 권번마다 소속해 있는 기생이 각각 수십 명씩 되어 이들을 요릿집에 소개해주고 요릿집에서 오는 화대 속에서 일정한 액수를 떼어갔다.

화대(花代)란 기생이 손님한테 서비스하고 받는 보수를 말하는 것인데, 1930년대에는 1시간에 1원 50전씩 받았다. 당시 쌀 1가마에 7~8원하였으니 쌀 것이 아니었고 한번 가면 3~4시간 서비스하니까 한번에 5~6원의 벌이는 되었다. 그러나 어떤 돈 잘 쓰는 한량을 만난다든가, 그 기생에게 마음이 있는 남자를 만나면 환심을 사기 위해 화대를 특별히 많이 줄 수 있으니 수

68) 『조선일보』 1928년 10월 23일자.

입이 얼마가 되는지는 알 수 없다. 권번에는 규정대로의 수수료만 지불하는 것이니 기생 개인의 수입은 자연 많아진다.

즉, ‘화대’라는 말도 사실은 기생의 일당 개념이다. 기생이 요릿집으로 나가면 권번에는 기생 이름 옆에 ‘출화(出花)라고 적었다.⁶⁹⁾ 화대의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놀음값, 해웃값의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지금은 단순히 몸을 사고파는 해웃값의 의미로만 쓰인다.

기생조합은 요릿집과의 계약을 통해 기생의 ‘놀음’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상업적 조직의 성격을 띠게 됨으로써 기예의 대중화와 상품화를 가져온다. 그 결과 기생조합과 요릿집의 결합은 기생이 고유한 기예 레퍼토리를 유지함으로써 전통 시대 상층부 문화의 미적 기준을 유지했던 기생의 예인으로서의 입지보다는 상업적 놀음공간의 접대부⁷⁰⁾로서의 기생의 이미지를 보다 강화하게 된다.⁷¹⁾

1936년 설립된 인화권번 정관을 보면 그 구체적 성격이 드러난다.

제5장 부칙

제11조 사원은 상법에서 정한 퇴사사유 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해 퇴사할 수 있다.

1. 사원이 치옥⁷²⁾영업을 폐하는 것.

1910년을 전후해 인천 용동에는 용동권번과 용금루(湧金樓, 조선각 전신), 화월관(花月館), 신흥관(新興館) 등이 성업을 이뤘다. 권번이 흥하면 요릿집도 흥하고 요릿집의 경기가 좋지 않으면 권번도 쇠퇴했다. 1927년 8월 4일자 『중외일보』를 보면, 용동기생이 음식 외상이 많아서 어렵다는 이유로 조선인 요리점에서 화대를 받지 못하자 조선인 요리점에는 가지 않겠다는 일종의 성명을 발표했다. 1937년 9월에는 전쟁 때문에 요릿집 수금이 건히지 않고 권번의 사정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기사를 볼 수 있다.

69) 2005년 정범태 면담자료.

70) 1908년 9월의 경시청령 제5호 ‘기생단속령’과 제6호 ‘창기단속령’에서 기생은 “주석에 앉아서 술을 따르고 기예를 업으로 하는 자”, ‘창기’는 ‘불특정 다수’에게 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자’로 정의되어 있다(서지영 「식민지 시대 기생연구—‘기생조합’의 성격을 중심으로」 II 재인용). 그러나 일제시대로 넘어오면서 기생의 이미지는 창기와 예기 두 가지 측면이 복합된 접대부의 이미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예기, 창기에 대해서는 폭넓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화자가 ‘애장춘몽’을 불렀다고 하여, 평생 기생출신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고 하여서, 기생들이 만든 잡지 『長恨』이나 『삼천리』나 『藝壇一百人』의 인터뷰 내용만으로 분석해서는 안 된다.

71) 서지영, 「식민지 시대 기생연구—‘기생조합’의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05) 재인용.

72) 치옥(置屋; おきや): 포주집. 기생·창녀를 두어 요릿집·찻집 등에서 손님이 청할 때 보내주는 집.

술과 여자는 서로 떠나지 못할만큼된 현세에 인천 각 료리점에서는 기생을 부를 수 없다는 기현상이 되어있다. 이제 그 내용을 탐문한 바에 의하면 지나 사변 발발 이후에 각료정은 휴업상태이라함은 기보한 바와 갓거니와 지난일은 료리점과 권반 간에 시간대의 계산일임에도 불구하고 인천 조선인 각 료리점에서는 팔월 수금이 전연 되지아니야 시간대를 지불치 못하게 되었습으로 점주들은 권반에 대하여 지불치 못한 시간대에 대하여는 증거금으로 삭제해야달나 하얏스나 이를 불응함으로 그러면 조합장과 조합에서 널 료리대로 상쇠식히자 하는 요구까지 하얏스나 이것까지 불응하고 맛참내 각 료리점에 청하는 기생의 배급을 거절하야 맛참내 손님은 여자 업는 술을 마시여야할 형편이라는 황금만능의 흥등가(흥등가)가 아니고는 보지못할 기현상을 일으키여 뜻 있는 자로 하여금 쓰디쓴 우습을 참지 못하는 인천의 화제거리가 되어있다한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이던 1939년 11월에는 심야영업이 폐지되었다. 밤 11시 이후로는 문을 닫고 방 안에 있는 손님들도 내보내야만 했다. 이와 관련해 기생들의 수입은 이전에 비하여 1/3도 되지 않아서 생활에 큰 타격을 입었다. 요정과 기생들은 적지 않은 혼란과 근심에 쌓였고, 전업을 하는 기생의 숫자도 자꾸 늘어가게 되었다. 일제시대 권반과 요리점이 결탁하면서 공생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⁷³⁾

IV. 용동권반 출신 예인

권반 기생은 한국 전통가무의 보존 전승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대중예술계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통 기예를 전수받은 마지막 예인들이 만큼 다양한 무대가 그들을 필요로 했다. 광무대, 연흥사 등 극장광고에 출연진으로 이름을 올린 기생들은 무대에서 판소리, 가야금 연주를 펼쳐보였고 라디오에도 단골로 출연했다.⁷⁴⁾

특히 초창기 여성 대중연예인 중에는 기생과 카페 여급 출신이 많았다. 연예인들은 광대라는 이미지에 덧붙여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직업의 하나였으므로 보수적 가정의 일반 여성들이 연예계로 뛰어들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비해 기생은 연예계 진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으며 조합이나 권반에서 노래와 무용, 악기 등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예능에

73) 『조선일보』 1939년 11월 16일 참조.

74) 김태수, 『꽃가치 피어 매혹케하라(신문광고로 본 근대의 풍경)』(서울: 황소자리, 2005)

뛰어났다. 따라서 제작자나 연출가들은 쉽게 발탁하여 상품화할 수 있는 이들을 선호했다. 배우나 가수 캐스팅을 위해 감독, 작곡자들이 권번으로 직접 찾아가 스카우트한 예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삼천리』 1937년 1월호 기사는 당시 여배우가 주로 기생과 여급사회에서 출현하는데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문 : 어째서 이화전문 문과 출신 같은 데서 여우를 구하지 못하고 그저 기생과 여급사회에서만 구하려 들어요? 동경서는 귀족 집안에서까지 구한다던데— 가령 ‘八江たか子’(이리에 다카코)로 말할지라도 그가 자작의 따님이 아녜요?

답 : 이화 출신이야 어디 눈이 높아서요.

매일신보 1930년 10월자에는 석금성(石金星)의 기사가 실렸다. 석금성은 이월화(李月華) 복혜숙(卜惠淑)과 함께 조선의 3대 여배우로 꼽혔던 인물이다.

당시 여배우와 기생 사이엔 적지 않은 교류가 있었던 것 같다. ‘KO생’이란 익명의 필자는 ‘여배우와 기생’이란 글에서 “여배우가 예술가이고 기생도 예술가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의 여배우와 기생과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무슨 깊은 관계가 있는 듯싶다”며 “극단에서 손가락 꼽는 배우로 ○○○와 ○○○와 ○○○ 등은 모두 전신이 기생 출신”이라고 말했다. 필자는 “기생 노릇을 한 사람이 배우 노릇을 하면 대개 다 성공을 하는 모양이니 기생과 여배우는 사촌간이라고나 할까”라며 “지금의 기생 중에서 얼마나 훌륭한 배우가 나올지도 모르지만 배우의 소질이 풍부한 사람은 얼른 나와서 조선 제일의 여배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⁷⁵⁾

일제시대 권번 출신의 대표적 예술인을 살펴보면 가수로는 선우일선, 왕수복, 이화자, 이은파, 이난영 등을 꼽을 수 있다. 배우로 석금성, 유신방, 안소남, 소리 명창으로 김옥심, 목계월, 장국심, 박녹주, 춤 명인으로 이매방, 김수악, 성계옥, 장금도 등이 모두 권번 출신이다.

유명 예인 중에는 권번 출신은 아니었지만 활동이 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는 등 여타의 사정으로 잠시 권번에 적을 두고 활동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일제시대 예술계와 권번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였다.

당시 예술인을 살펴보면 서울과 평양 등 예능교육의 수준이 높았고 전통

75) 『매일신보』 1930년 10월 3일자 ‘무대배우 석금성(웃음 속에 피는 눈물)’.

『인천학 연구』 6(2007. 2)

적으로 명기를 많이 배출하던 지역의 권번 출신이 많았다. 특히 평양의 기성 권번 출신들은 가요계에서 큰 두각을 드러냈다.⁷⁶⁾

예술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 중에는 인천 용동권번과 인연을 맺었던 예술인도 적지 않았다. 영화 초창기 대표적 여배우였던 복혜숙, 나운규 영화의 여주인공이었던 배우 유신방, ‘민요의 여왕’으로 불렸던 이화자, 명창 이화중선 등이 그들이다.⁷⁷⁾ 이들의 삶은 스타로서의 활동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한때 용동권번에서 인천지역 사교계를 좌우했음은 그리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다.

본 장에서는 용동권번 출신 예인의 삶과 인천에서의 활동을 살펴보겠다. 예술인에 대한 문헌 자료로써 당시 신문, 잡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인천출신 문인, 인천 경로당 노인 30여 명을 만나 구술대담을 병행하였다.⁷⁸⁾

1. 배우 복혜숙(卜惠淑)

복혜숙(1904~1982)은 우리나라 영화산업 초창기 조선의 3대 여배우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출연작품으로 연극계 데뷔작품 <오, 천명>을 비롯하여 <춘향전>, <인형의 집>, <뺨 맞은 그 자식>, <간난이의 설움> 등과 영화 <농중조(籠中鳥)>, <홍련비련>, <낙화유수>, <자유만세>, <아리랑> 등이 있다. 1925년 라디오 방송극 <새벽종>에서 성우로도 활약을 했다. 연극·영화가 뿌리내리기 시작하던 무렵 무대와 스크린을 넘나들며 한국 예술을 풍부하게 만든 여배우이다.⁷⁹⁾

복혜숙은 이화학당을 거쳐 일본 유학까지 한 보기 드문 인텔리 여배우였다. 해방 이후에는 배우협회장과 서울시 문화위원으로 활약했고 문공부장관

76) 『삼천리』 제7권 제10호 1935년 11월호 「歌手の都 平壤」

오늘날 레코-드가수 중에서 그 거의를 평양이 차지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하기는 한 사람을 내노코는 모다 여가수들일 것이다. 여기에다가 그들의 일홈을 느러노을 것까지 없겠지만, 참고로 생각나는 대로 써보면 王壽福, 鮮于一扇, 崔妍妍, 金蓮月, 崔昌仙, 韓晶玉, 金福姬, 崔明珠 등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또 말해두고 심픈 것은 이들의 전부가 현재의 기생이라는 점이다.(崔昌仙은 아닌 것 갓지만). 조선가수들이 모다 몇명인지 일일이 꼽아나갈 겨를을 가지지 못했지만은, 오늘날의 레코-드계를 평양기생들이 리-드하는 것만 사실일 것이다.

77) 이 외에도 배우 황정순과 도금봉, 명창 목계월 등도 인천권번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다. 이에 황정순, 목계월등에게 질문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으며, 신문·잡지 등에서도 정확한 기록을 찾지 못하였기에 본 논문에서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78) 인천 출신의 문학인인 김윤식(60세, 시인, 인천예통문인협회장), 김양수(73세, 문학평론가, 인천시사편찬위원, 『인천개화백경』 저자), 인천경로당(사단법인 대한노인 인천광역시 중구지회) 노인 30여 명과 대담을 진행하였다.

79) 유민영, 『한국연극운동사』 (서울: 태학사, 2001)

공로상과 이화여대 문화상을 수상했다. 대중예술 초창기에 활동했던 배우치고는 그 경력과 활약상이 꽤 구체적으로 밝혀진 인물이다.

그러나 연극계 주연으로 데뷔한 이후, 인천 용동권변에서 3년여 동안 활동했음은 그리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다.

복혜숙이 권변에서 활동했던 이유와 상황에 대해 1933년 『삼천리』 1월호 ‘우리들의 ‘카쥬사’ 복혜숙양’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월회가 지방순업중에 공견에 빠졌을 적마다 복혜숙양은 그의 가진 바 옷, 패물은 물론이오 부득이한 때는 자기의 몸을 인질로 잡히고까지 토월회 일행을 구해준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도록 그의 일에 대한 열과 공분심이 컸다는 것은 아름다운 에피소드다.

그후 그는 무엇이 동기가 되어 몸을 휘날려 인천 어떤 권변에 적(籍)을 걸고 기생으로 변하고 말았는가? (중략) 석일에 무대 여배우로 오직 혼자인 것처럼 빛나던 복양은 지금은 인천을 뛰어나와서 대경성의 중심 종로의 ‘바-비-너쓰’의 흥등 청등 아래서 야반(夜半)의 취객에게 애교를 발산하면서 있다니 때때로는 그의 붉은 입술에서는 그리운 ‘컬럼비아’의 ‘레코-드’에 맞추어 ‘가쥬-사 내사랑’이 흘러나오지나 안는지.

김양수에 따르면 복혜숙이 용동권변에 들어오게 된 배경에 대해 인천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알고 있다고 한다.

복혜숙이 토월회 멤버로 인천 공연에 왔을 때 마침 장마가 찾아와 공연을 제대로 못하고 적자가 났다. 단원 30여 명이 머물렀던 여관의 숙박비, 식비 등을 낼 수 없게 되자 남자 단원들이 서울에 가서 돈을 마련해오겠다며 복혜숙을 여관에 담보로 잡혀놓고 서울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들이 돈을 마련해오지 않자 여관 주인은 복혜숙을 권변에 넘겼으며, 그녀는 30여 명 단원의 1주일 치 숙식비, 체류비 등을 갚기 위해 3년간 권변 생활을 하였다. 유명 여성 연극 배우가 기생이 되었다는 소문은 당시 인천 한량들을 중심으로 한껏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인천 지역 부호들, 유명 인사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았으며 이와 관련한 로맨스·스캔들이 꼬리를 물었다. 복혜숙과 극단 단원들은 빚을 못 갚아 여배우가 기생이 된 사건이 구차하고 망신스러워 일체 비밀에 붙였다. 나중에 이광수⁸⁰⁾, 김성수⁸¹⁾ 등이 소문을 듣고 부랴부랴 복혜숙을

80) 이광수(1892~1950) : 평안북도 정주 출생. 와세다대학 철학과 졸업. 1917년 매일신보에 근대 장편 소설 「무정」 연재. 조선일보 부사장 역임.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투옥. 한국전쟁 때 납북되었다.

81) 김성수(金性洙, 1891~1955) : 울산 출생. 1920년 『동아일보』를 창간했다. 1932년 보성전문(普成專門)을 인수하고 교장에 취임하였다.

『인천학 연구』 6(2007. 2)

구출하러 찾아왔으나 그때는 이미 3년간의 권변 활동으로 빛을 모두 청산한 이후였다.

복혜숙 뿐 아니라 당시 여배우들에게는 극단 빛을 대신하여 몸을 잡히는 경우가 다반사였던 것 같다. 『별건곤』의 1927년 1월의 기사도 이 같은 사실을 반영한다.

그러나 신파연극 일행도 시골 흥행을 나가서는 장국밥 한 그릇도 못 얻어 먹고 호떡 두 개에 주림을 채우고 독각이집 갓흔 연극장 무대 뒷방에 쓰러져서 밥을 지내는 것이 보통이요 었저다가 러관방에 묵었다가는 밥값에 쪼들니여 어느 때던지 얼굴 반반한 강짜 배우가 몸던당을 잡혀 잇게 되는 때가 종종 잇스니 무대에서만 내려오면 딱한 신세이지요.

토월회가 복혜숙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것에 대해 당시 문화계의 은근한 비웃음의 시선이 느껴진다.

토월회는 다시 이러나스나 넷날의 조흔 반려 복혜숙양의 존재는 이저버렸든지 닻 부르지도 안었다. 그리고는 토월회는 인천으로 진출해서 3일간 공연을 한 일이 잇스나 관객은 지극히 령성하야 아주 실패하고 도라와다. 누가 알라? 토월회의 무정에 분개한 복양이 분푸리로 관객을 모조리 매수한 때문이엇든 줄을.⁸²⁾

복혜숙은 자의가 아닌 극단 재정문제로 권변에 입적했지만 주연배우 출신답게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1931년도 『별건곤』 제45호 기사는 복혜숙이 인천 사교계에서 군림하며 기생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그가 세 번째= 처음은 개성, 다음은 경성, 지금은 인천= 기생이 된 뒤 그는 단연히 기생으로서의 천직을 다하야 외국의 선객을 자조마저 드리는 인천에서는 그야말로 사교계의 꽃이 되야있다. 더욱히 룡동 권변의 남자 임원들의 부정행위를 적발하야 적년의 폐습을 깨치고 「우리의 권변은 우리가 경륜하자」는 새못토 아래 단연히 룡동 권변의 권위가 되야 잇는 것도 그의 말년에 잇슴 즉한 일이다.⁸³⁾

82) 『삼천리』 (제5권 제1호) 1933년 1월호 「우리들의 '카쥬사' 복혜숙양」을 살펴보겠다.

83) 『별건곤』 제45호, 1931년. 「劇場 紅唇曲, 女俳優들의 이 모양 저 모양」. 여기서 그는 복혜숙을 가리킨다.

권변에서 나온 후, 복혜숙은 깍다점(다방) 비너스를 경영하며 마담으로 당대의 예술계를 풍미하였다. 서울 인사동에 있던 ‘비너스’는 나운규·문예봉·이청전 같은 예술인과 여운형·김준연 같은 정치인들이 단골로 들러 담론을 나누던 장소가 되었다.

『삼천리』 1937년 1월호는 “서울에 판스 홀을 허하라”는 공개 탄원서를 실고 있다. 복혜숙을 비롯한 기생, 동양극장 여배우 등 이른바 신여성들이 연명한 탄원서였다. 술집과 카페는 허가를 해주면서 건전한 사교오락장인 판스 홀은 왜 안되는가라고 따지는 내용으로, 말하자면 육체의 육망을 공인하라는 정치적 청원서에 서명을 한 셈이다.⁸⁴⁾

지적이고 도전적인 신여성의 삶을 살았던 배우 복혜숙은 전국민으로 부터 사랑받는 대배우가 되었다. 2006년 단성사 개관 100주년을 기념하여 선정한 ‘한국영화 100년을 빛낸 영화인 100인’ 중 여배우 26명 안에 당당히 자리를 차지하였다.

비록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예술계의 영향력 있는 여류인사 복혜숙이 인천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하며 권변 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은 당시 인천 예술계에 대한 하나의 이해지점이 될 것이다.

2. 배우 유신방(柳新芳)

배우 유신방은 영화 <사나이>, <병어리 삼룡>, <아리랑 후편> 등의 여주인공을 맡은 인물이다. 초기 영화의 감독·주연·제작을 맡으며 한국 영화사에 한 획을 그었던 나운규⁸⁵⁾의 애인이었으며, 그를 파멸에 이르게 한 당사자로도 유명한 사람이었다.

84) 『씨네 21』 No. 411. 2003년 7월 셋째 주.

85) 나운규(羅雲奎, 1902~1937) : 영화배우, 감독, 제작자. 호는 춘사(春史). 회령(會寧) 출생. 1918년 만주 간도에 있는 명동중학에 들어갔으나 학교가 폐교되어 독립운동을 하다 <청회선터널폭파미수사건>의 용의자로 잡혀 1년 6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1924년 부산에 설립된 조선키네마주식회사의 연구생이 되었고, 조선키네마가 제작한 <운영전(雲英傳)>에 가마꾼으로 첫 출연하였다. 그 뒤 연기와 배우로 인정받아 <농중조(籠中鳥)>에 출연하여 절찬을 받음으로써 일약 명배우가 되었다. 그는 독립운동을 배경으로 한 저항적인 작품 <아리랑>과 <풍운아>를 직접 쓰고 감독·주연을 맡아 영화계의 귀재(鬼才)로 불리게 되었다. 1927년 나운규 프로덕션을 창립하여 1929년 격조 높은 문예영화 <병어리 삼룡>을 발표하였다. 한때 인기가 떨어져 악극단 무대에 서기도 했는데, 1931년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 영화계를 시찰하고 1932년에 귀국, <임자 없는 나룻배>에 출연하여 좋은 인기를 보였다. 1936년 한국 영화계에 발성영화가 등장하자 <아리랑> 제 3편을 발성영화로 제작하였다. 영화인으로 활동하면서 26편의 영화에서 주연, 감독, 제작을 맡았다. 출연영화로 <풍운아>, <들쥐>, <후과 백>, <금붕어>, <잘 있거라>, <옥녀>, <사랑을 찾아서>, <사나이>, <철인도(鐵人都)>, <금강한(金剛恨)> 등이 있다. 그는 일제강점기 민족영화의 선각자로서 영화의 정신과 수준을 크게 끌어올렸다.

『인천학 연구』 6(2007. 2)

유신방은 오향선(吳香仙)이란 이름을 쓰던 용동권번의 기생이었는데, 미모와 재능이 뛰어나 나운규에 의해 캐스팅되었다. 유신방의 출신 및 영화계 데뷔와 관련하여 나운규는 『삼천리』 1937년 1월호 대담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名優 羅雲奎氏 「아리랑」等 自作全部를 말함

(중략)

問 - 여자 스타는 누구였든가요?

答 - 柳新芳이라고 새로 나온 이지요. 仁川에 놀러갔다가 내가 발견했지요. 인천서 기생노릇을 하든 여성입니다. 그러나 어느 여자고보 「女子高普」를 마친 인테리 여성이었지요. 文學을 좋아하여 스사로 붓을 드러 詩도 짓고 劇도 쓰느라 하였고 風貌도 敎養이 있느니 만치 인테리의 근대적 여성으로 보였지요.

問 - 나히는.

答 - 그때 수물 세살.

기사로 보아 유신방은 여자고보까지 나온 후 권번에 들어간 당시로서는 인텔리 여성이었다. 유신방이 데뷔하기 전까지 나운규 프로덕션의 대표 여배우는 전옥(全玉)⁸⁶이었다. 전옥은 <옥녀>, <사랑의 찾아서> 등의 주연을 맡으며 스타의 길을 걷고 있었으나 유신방의 등장으로 주연에서 밀려났다. 나운규가 자신의 애인인 기생 유신방을 <사나이>(1928), <병어리 삼룡>(1929), <아리랑 후편>(1930)에 주인공으로 거듭 기용하자 전옥은 영화계를 떠나 연극무대로 돌아갔다. 되돌아간 연극무대에서 특유의 비극연기로 ‘비극의 여왕’, ‘눈물의 여왕’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된다.

유신방의 활약과 언론의 관심은 『동광』 제23호(1931년 7월) 「조선영화인 연과레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신방

나운규군의 적발로 仁川妓園에서 뛰여 나와 「사나히」, 「병어리 삼룡」 등에 나왔다가 다시 택원하였다고. 毒婦 역으로 쓸만 한 사람이었다.

86) 전옥(全玉, 1911~1974): 연극인·배우. 본명은 덕례(德禮). 나운규 감독의 <잘있거라>, <옥녀>, <사랑을 찾아서> 등에 출연했다. 극단 토월회에서 <아리랑고개> 로 인기를 모아 이후 <췌즈의 멜로디>, <황구의 일야> 등 연극과 년센스 등을 음반으로 발표하며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극장에서 비극의 주인공으로 열연하며 ‘눈물의 여왕’이라는 호칭으로 연예사(演藝史)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問-「병어리 三龍」은 마치 저 藤森成吉의 「何が 彼女をおさうさせたか」

와 비슷한 맛이 있지요?

答-그래요. 생각하여보면 껍으나 심각한 제재었어요. 그때 돈이 들기는 3,600원이었는데 스을 너무 크게 잡았다가 아소 실패한 점이 있었어요. 나는 지금도 생각하거니와 그것을 다시 토—키로 박어보고 싶어요.

問-마즈막의 라스트 씬—인 불놓는 장면은 셋트로 했든가요.

答-(중략) 내 전신에도 빨간 불길이 불확, 고—나는 크게 火傷했지요. 이마와 옆구리에—도 한사하고 그 여자를 구해내기까지는 하였지요. 「카메라」가 작고만 도라가는데 그렇다고 끊질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 뒤 약 한달 동안을 두고 알었지. 큰 화상을 당했어요. 그 여자도 머리가 타고 젓가슴 타고 야단 낫지요. 마춤 누가 경험있는 이가 있어 온몸이 火光에 싸힌 나를 보고 그냥 땅우에 구을라고 하여 눈 우에 마구 구웠기에 목숨은 구했지만 지금 생각하기에도 몸서리가 치는 큰 모험이었어요.

問-그때 그 여자는 누구인데.

答-역시 柳新芳이었지요.

월간 『삼천리』는 1932년 10월호에서 ‘황금의 수레를 타고 영화를 누린 명기 일대기’라는 부제를 붙여 장안 명기 영화사를 소개했다. 유신방은 ‘나운규와 사랑을 맺을 때 비단 손수건에 러브레터를 써 보내 영화 <사나이>에 출연한 오향선’이라는 구절로 소개되었다.⁸⁷⁾

그런데 혜성같이 나타나 여주인공으로 주목받던 유신방은 데뷔 얼마 후의 기사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였다.

「병어리 三龍」에 주연한 柳新芳 양은 지금 어데서 무엇하고 잇스며 연극 시장의 李愛利秀 양은 아즉 미혼임닛가? 草兵丁 답 안하면 안됩니다!

江口 1 映畫人

『병어리 三龍』에 주연하신 柳新芳 양은 영화를 떠나 지금은 金剛山에서 삭발 爲僧으로 속세를 단념하시고 염불을 하시며 쟁화길을 닦고 계십니다.⁸⁸⁾

유신방의 연예계 삶과 은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찾을 수 있다.

87) 김태수, 『꽃가치 피어 매혹케 하라(신문광고로 본 근대의 풍경)』(서울: 황소자리, 2005).

88) 『삼천리』(제4권 제1호) 1932년 1월 1일.

류신방(柳新芳)은 현재 생존해 있으며 甲一仙과 같이 불교신자로서 입산수도를 하고 있다. 1930년 나운규(羅雲奎)감독 『鐵人都(철인도)』에서 데뷔했으며 경남 진주가 고향이며 본명은 오향선(吳香善)이다. 나운규가 『병어리 삼룡』을 완성한 1929년 봄 인천에서 새 제작자 물색 차 연고인(緣故人)을 찾고 있던 중 오향선이라는 가무에 능란하고 지성적이며 아름다운 미모의 기생을 만났는데 그가 바로 예명(藝名) 류신방 그녀였다. 나운규가 영화제작을 할 제작자를 찾지 못하고 영화에 대한 꿈을 喪失한 채 그녀에게 얽혀 약 반년의 세월을 보냈을 때 나운규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힌 사람이 촬영기사 이명우였다. 이명우와 이구영 씨가 당시 단성사 사장 박승필(朴承弼)을 설득, 다시 제작에 착수시킨 것이 『아리랑』 후편이다. 이때 오향선이 나운규와 같이 상경, 영화계에 데뷔하면서 류신방이란 예명을 갖게 되었다. 류신방은 나운규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연속 『철인도』 등 영화에 출연을 했다. 류신방은 나운규가 『철인도』를 제작 중, 자금난에 빠지자 개성권번(開城券番)에 다시 기적(妓籍)을 얻고 개성 모 부호에게 자금을 조달, 영화를 완성시킨 후 나운규가 그녀에게 방탕한 생활을 청산할 것을 요구 영화계에서 대성할 수 있는 제작자금을 자신이 조달하겠다고 고집(固執)하자 그녀는 개성 모 부호와 나운규 사이에서 고민하던 중 인연을 끊고 바로 불신도가 되었다.⁸⁹⁾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유신방이 나운규를 만나 영화배우의 삶을 산 것은 불과 몇 년에 불과했으며, 이후 불자(佛者)가 되어 은퇴하였다. 그러나 유신방은 천재 나운규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인공으로 영화사에서 기억된다. 나운규가 영화에 쏟아야 될 열정과 집념, 시간과 돈을 유신방과의 연애에 쏟아부었다는 지탄이 이어졌다. <병어리 삼룡>을 찍던 시절, 카메라를 잡히고 돈을 뽑아 당시 애인사이였던 인천 기생 유신방과 인천 송도에서 해수욕을 했다는 에피소드도 유명하다.

유방향(柳芳香: 익명)이라는 여자, 그 때 영화배우로서 제일 얼굴과 체격이 좋았고 언뜻 보기에도 어딘지 깊숙이 끄는 데도 있겠지만 또 파탈하고서 맘껏 놀 수도 있는 여자다. 나씨는 이 여자로 해서 그의 성격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던가. 이때로부터 예술가로서 불타는 제작욕보다 인생의 향기를 찾아 헤매게 되는 동안 그는 돈쓰는 게 거칠어지고 이 거칠어진 돈쓰는 방법은 나씨 이후의 영화계에 한 풍속이 되어서 결국 나씨는 조선영화계의 큰 은인이면서도 지금까지 똑똑한 영화기관이 없는 그 원인을 추궁한다면 나씨가 책임을 져야 할 과실도 된다. 젊은 여자 유방향은 조선영화의 요화(妖花)였다. ⁹⁰⁾

89) 孫美子, 「映畫史的 側面에서 본 韓國女俳優 研究」(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1)

유신방이라는 존재로 인한 나운규의 부침(浮沈)과 여타의 진실은 아마 당사자 두 사람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다만 용동권변 출신의 유신방이 영화계에 발탁되어 짧은 기간동안 영화계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음을 조명하였다.

3. 가수 이화자(李花子)

이화자(1916~1950)는 1930년대 후반 인기절정의 스타로 ‘민요의 여왕’으로 불린 인물이다. 구수한 목소리의 낮두리 같은 표현과 콧소리의 간드러지는 흥얼거림 등 독특한 창법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화자는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기생이 되어 1936년 뉴코리아 레코드에서 가수로 데뷔할 때까지 용동에서 활동했다. 기록에 따라서는 작곡자 김용환이 부평의 술집에서 스카우트했다⁹¹⁾, 개성권변 출신이 확실하다⁹²⁾는 등 이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인천 토박이들은 이화자를 용동권변 기생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사해공론』⁹³⁾과 『만선일보』⁹⁴⁾에서도 그의 출생지를 인천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12일자에 ‘인천권변기생들도 의연금 모집 활동’이란 기사가 실렸는데, 여기에 이화자라는 기생의 이름이 보인다. 당시 기생들의 이름이 비슷비슷하다 보니 혹시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그의 출생지 등을 고려할 때 이화자는 인천권변 기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⁹⁵⁾

뉴코리아 레코드에서 데뷔하여 포리들과 오-케 레코드 등에서 활동하면서 부른 노래는 총 125곡이 넘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의 출신과 처지를 그대로 읊은 듯한 <화류춘몽>은 크게 히트하였다.

花流春夢 (조명암 작사, 김해송 작곡)

꽃다운 이팔소년 울려도 보았으며/ 철없는 첫사랑에 울기도 했드란다/ 연지와 분을 발러 다듬는 얼굴위에/ 청춘이 바스러진 낙화신세/ 마음마저 기생이란 이름이 원수다.

90) 『조선일보』 1940년 2월 16일자.

91) 박찬호, 『한국가요사』 (서울: 현암사, 1992) 348쪽.

92) 송방송, 「신민요가수의 음악사회사적 조명—권변 출신의 여가수를 중심으로」, 『낭만음악』 (제14권 제3호, 2002년 여름호, 2002), 59쪽.

93) 『사해공론』, 1936년 5월호.

94) 『만선일보』 1940년 7월 31일자.

95) 장유정, 『1930년대 기생의 음악활동 일고찰』, 민족문화논총(제30집), 495-496쪽.

『인천학 연구』 6(2007. 2)

점잔한 사람한테 귀염도 받았으며/ 나젊은 사람한테 사랑도 했드란다/ 밤늦은 인력거에 취하는 몸을 실어/ 손수건 적신 적이 몇 번이고/ 이름조차 기생이면 마음도 그러냐

빛나는 금강석을 탐내도 보았으며/ 겁나는 세력앞에 아양도 떨었단다/ 호강도 시들하고 사랑도 시들해진/ 한 떨기 짓밟히는 낙화신세/ 마음마저 썩는 것이 기생의 도리냐

이화자는 작곡가 김해송으로부터 이 노래의 악보를 받고서 자신이 부를 것인지, 말 것인지 한동안 망설였다고 한다. 자신이 화류계 출신이다보니 자기의 인생을 비유하여 만든 것처럼 생각되어 주저했던 것이었다. <목포의 눈물>의 가수 이난영의 남편인 김해송은 팔시 받는 화류계 여성의 아픔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화류춘몽>은 꼭 당신이 불러야 한다고 그를 끝까지 설득하여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1940년 오-케 레코드사에서 이 노래가 발표되자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크게 히트가 되었다.

이 노래가 발표되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비관한 기생들, 화류계 여인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살하는 등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줬다.⁹⁶⁾

이화자는 <섬 아가씨>, <처녀 18세>, <꿀망태목동>, <범벅타령>, <화류춘몽>, <목단강 편지>등을 연이어 히트시켰다. 일제 말기 일본에서 열린 재일교포들을 상대로 한 쇼 공연은 관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 가짜 이화자를 등장시키기까지 했을 정도로 해외 교포사회에서도 이화자의 인기는 절대적이었다.⁹⁷⁾ 그러나 이화자는 화류계 출신이었다는 자괴감 때문에 괴로워했으며, 이성관계도 문란하였다. 해방 이후부터는 인기를 잃은 채 가난과 아편으로 처절한 삶을 살다 한국전쟁 중에 사망했다고 한다.

동아일보 1957년 7월 28일 기사는 “人間家族 (十八) 人生流轉 ; 阿片 皮우며 몸 파는 身勢 李花子 따른 두 번째 韓國舞臺藝術人의 黃昏娼女로 轉落한 舞姬·洪淸子嬢”라 하여 전락한 예술인의 한 예로 이화자를 들고 있다.

용동권번 출신 이화자는 기생으로서의 삶과 운명을 자조적으로 보여준 노래를 히트시키며 한 때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그 비참한 말로로 인해 가요사에서 비운의 가수로 각인되었다.

96) 「이야기로 듣는 옛 노래 ③ '화류춘몽'에 얽힌 사연-가수 이화자 시골 술집서 스카웃」, 『충청투데이』, 2006년 4월 14일자.

97) 신현규, 『꽃을 잡고』 (서울: 경덕출판사, 2006)

4. 명창 이화중선(李花中仙)

이화중선(1898~1943)은 한국 최초의 여류명창인 진채선(陳彩仙) 이래 손꼽히는 여류명창으로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린 인물이다. 일제시대 여류명창들이 판소리관 중심으로 나오게 되는 선구자적 역할을 했으며, 가장 많은 유성기 음반을 발매하였던 명창으로도 기록된다.

이화중선의 출생지와 출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남원권변 출신이었다, 조선권변에 있었다는 등 권변과 관련된 의견도 분분하다.⁹⁸⁾ 그러나 인천지역 토박이들의 이야기를 참고하면 이화중선이 용동권변에 입적했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부산 출신으로 협률사의 공연을 보고 반해 집을 나온 후 용동권변에 입적했으며, 일본인 기생보다 더 노래를 잘 불러 일본군 함장의 마음을 끌었다고 한다.⁹⁹⁾ 1921년 4월, 조선일보 기사에서 이화중선이 인천의 축항사에서 공연한 기록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일정 기간 인천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⁰⁰⁾

이화중선은 당대의 명창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후대의 명창들이 판소리에 입문하는 동기를 만들기도 했다. 판소리의 대가이자 중요무형문화재 제 5호인 김소희(金素姬, 1917~1995)도 광주여고보 시절인 13세 때 이화중선의 공연을 보고 소리꾼이 되기로 결심했다.

“울리고 웃기는 가락이며 가사, 부채를 꼬나 쥔 채 관객을 온통 탄성의 도가니로 몰고 가는 발림, 오금을 못쓰고 빨려들게 하는 아니리 등에 완전히 도취되고 말았다”며 감회를 밝혔다.¹⁰¹⁾

당대 남자명창들에게도 이화중선은 극찬의 대상이었다.

李花中仙, 이이는 40을 바라보는 이로서 일즉이 그에 이름이 널리 세상에 알려졌다. 그 성대는 완전히 남성과 같고 구성임으로 「박타령」도 좋지만 「화용도」의 「엇머리」조로 「한장수 나오난테」 저 장수 거동보아라. 얼굴은 대초빛 같고 삼각수거사리고 봉의 눈을 부릅뜨고 청용도를 빗겨 들고 호통을 지르며 이바쵸 승상 그대 용맹이 좋단들 이제난 무가내하 밧비 나와 항

98) 최혜진, 『이화중선의 생애와 예술성』(판소리학회, 2003) 참고.

99) 인천시청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참고.

100) 『조선일보』, 1921년 4월 14일자.

101) 『전북일보』 1972년 8월 20일자 ‘나의 편력’.

『인천학 연구』 6(2007. 2)

복하라. 군사 군마 뉘을 잃고 가도오도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고 별별떨고 셋슬 제 게 조조 할 일 없어 관공 전에 빌야할 제. 비나이다 (느진중머리) 조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장군 전에 비나이다 이별한 지 수년 만에 괴후무량하신잇가 관공이 하령하되 이바조 승상 쥐가튼 그대 몸이 사해를 운동하니 백성더러 요란할 제 부모처자 다 바리고 분망이 다니나냐 참아보기 어려워서 그대 잡으러 내 왓스니 말말고 쉬 죽으라.」하는 구절에는 실로 명창의 숨씨가 나타난다.¹⁰²⁾

이화중선은 서울로 와서 송만갑(宋萬甲)· 이동백(李東伯)의 지도를 받아 당시 여류명창으로서 최고 인기였다. 아무리 어려운 대목도 거침없이 시원스럽게 불러 청중을 매혹시켰다. 그녀는 <심청가> 중에서 ‘추월만정(秋月滿庭)’, <춘향가> 중에서 ‘사랑가’에 능했다. 대동가극단을 조직하여 지방순회 공연을 많이 하였고, 일본 공연도 하였다. 그러나 만인의 인기를 모으던 그녀는 1943년, 재일한국인 노무자 위문공연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 일본 세도 나이가이(瀬戸内海) 부근 바다에서 투신자살을 했다고 한다. 평소 지병을 비판하여 자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아편중독에다 결핵을 앓았다는 설도 있다. ‘수수께끼같은 명창’이라고 불릴 만큼 사생활이 공개되지 않았던 이화중선. 그녀가 용동권번에서 활동했다면 아마 인천지역 예술계의 지형에도 분명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대단한 명창의 반열에 들었던 이화중선이 인천 사교계에서 예기(藝妓)로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권번 기생들의 소리공부에 어떤 자극을 주었는지, 인천 공연예술계에서 가진 영향력은 어떠한지 등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일 것이다. 향후 이화중선에 대한 새로운 기록과 증언들이 발견되어 그 행적이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지길 기대한다.

5. 기생 박미향(朴美香)

박미향은 출생과 행적 등이 정확히 밝혀진 인물은 아니다. 그러나 신문, 잡지 등에 등장한 것으로 보아 인천 지역에서 상당한 유명세를 탄 기생이 아니었다 싶다. 1931년 『별건곤』에는 인천 기생 박미향과 중국장교의 애정 이야기가 실려 있다.

1931년 지난 6월 18일에 청도사령부 소속 순양함(巡洋艦) 해침(海琛)이 인

102) 吳太石, ‘男唄이 본 女流名唄’ 『삼천리』 (제7권 제10호), 1935년.

천항(仁川港)에 정박하고 함장 방엽조 상교(方念祖 上校)(상교는 대좌격)는 기자들에게 22일까지 인천에 머무르겠다고 하였으나 25일이 지나도 함대는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인천에는 “부함장 나리가 요사히 어느 기생아씨에게 반하시여 참아 떨칠 수가 없어서 그런다네” 라는 소문이 돌았다.

전기와 가튼 풍설을 자어내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가튼 사실이 숨이여 잇든 관계이다.

바로 해침순양함이 인천에 닛든 18일 <16> 밤에 인천 일류 료리점 린루(麟樓)에는 청호한 여름 힌 양복에다 금(金) 『모근-』(참모줄)을 느린 수명의 청년 해군장교를 주빈으로 한 아담한 연회가 잇섯는데 이것은 당일 인천에 입항 항 막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인천부윤(仁川府尹)이 배설한 환영연이 엿섯다. 오래 동안 바다 가운데에서 험한 파도와 거츠른 물결과 싸와 오든 그네들도 이국의 그옥한 정서에 취하여 권커니 작커니 하는 오고가 술잔이 기우러졌 슬때에 그중에 부함장으로 잇는 조수지 중교(曹樹芝中校)(중교는 중좌격)의 눈에 기모노 입은 일본기생보다도 백의에 조선 기생에게로 마음이 쏠리기 시작하여 그 중에는 박미향(朴美香)이라는 기생에게 마음이 움직이게 되엇다. 둥글고도 기름한 얼굴이 무엇보다도 정다워 보이엇스며 소리 업시 웃는 미향의 우슴은 말할 수 업는 매력을 가지고 조수지 장교이 마음을 사로잡고 말엇든 것이다. 조장교는 미향을 보고 말을 붓치려하나 외국어라고는 영어(英語) 박게 몰으고 미향은 일본말 박게 알지 못하게 되엇스니 엿지 안타가운 심정을 다호소할 수 잇섯스라? 조장교는 타올으는 열정을 참다 못하여 최후의 용기를 내이어 방함장에게 애원을 하엇다. 방함장은 일즉이 일본에 유학한 일이 잇슴으로 그 덕분에 첫 번 맏마디 수작은 걸어 보앗스나 감히 상관(上官)을 통역 식히어 사랑의 정화까지는 교환할 수 업슴을 깨닷게 된 조장교는 더욱 기가 막히엇스나 나중에는 미향이 한문을 잘하는 줄 알게 되자 필담으로 피차에 정담을 속삭이게 되엇다. 그날 밤에 연회는 밤이 깊혀 헤여지고 그후로는 날을 거듭하여 산동동향회(山東同鄉會) 중화화상회(中華華商會) 등의 각 중국인 단체에서 환영회가 열리게 되엇는데 연회마다 미향의 자태가 나타나지 아니한 적이 업섯다. 그것은 눈치 빠른 화교(華僑)들이 모국의 젊은 장교의 가삼 속을 잘 알게 된 탓이 엿섯다. 런일 두고 연회가 계속되엇섯스나 군함이 떠나기 전날인 24일은 아모 곳에서도 연회가 엿섯다. 그리하여 조장교는 미향을 만날 기회가 업슴으로 참다 참다 못하여 자동차를 미향의 집까지 보내여 군함에다 마저다가 연회를 베풀고 질탕이 논 뒤에 해가 뉘엇뉘엇 서산으로 겨우 넘어가고 남겨지 붉은 해말이 월미도 바다에 잠기엇슬 때에는 선교루(船橋樓)에서 미향을 작별하게 되엇는데 미향을 귀빈으로 대립하여 쌍라팔을 붙여 함례(船禮)까지 하여 주엇다. 그리고 배가 떠나기 전날인 25일은 일은 아츨부터 미향의 집을 차자가서 그날 밤이 지나고 그 이튿날 새벽까지 만단 설화를 하야가며 사랑을 호소하다가 굿은 포옹으로 애긔는 최후의 작별을 지우고 중국 청년 장교 조수지는 인연 김흔 인천을 멀리 두고 떠나게 되엇다.¹⁰³⁾

『인천학 연구』 6(2007. 2)

권번에서는 예능교육 뿐 아니라 교양교육, 일본어 교육 등이 이루어졌었다. 특히 당시 인천 개항장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활동했기 때문에 기생들에게겐 한국어 뿐 아니라 일본어 사용이 필수였을 것이다. 위의 기사로 보아 박미향 역시 일본어가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박미향은 1933년 12월 21일자 『조선중앙일보』의 ‘훤쳐갔던 물품을 필경도로 갖다 주어, 인천의 괴상한 도적’의 기사에서도 다시 한번 등장한다. 도둑 사건이 흥미 있어서 기사화된 것인지, 박미향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의 대상이어서 기사화된 것인지는 정확하지는 않다. 다만 이 흥미로운 기사를 통해 기생 박미향이 주목받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1936년 『삼천리』에는 당시 어떤 요리점이 좋은지에 대한 기사와 함께 서울 시내 각 권번 예능 우수자의 명단이 실려 있다. 조선권번의 사교춤 우수자로 박미향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인천의 박미향이 조선권번으로 갔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지방의 유명한 기생들이 서울로 진출했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가능성이 있다.

박미향은 앞서 언급한 복혜숙, 이화자 등 유명 예술인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진 탓인지 인천 출신 노인들과의 대담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지 못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인천의 근현대 문화를 파악하려는 연구의 일환으로 일제시대 인천의 용동권번에 대해 분석하였다.

항구도시 인천은 개항과 동시에 타문화를 꾸준히 받아온 문화접변지역이었다. 특히 일제시대에는 쌀의 수출입 항구로서 전국의 미두상(米豆商)들이 몰려와 번영하면서 자연스레 소비와 유흥의 문화도 성장하였으리라 본다. 일제시대의 권번은 유흥과 전통예술의 한 축을 담당했으며, 시대와 역사를 반영하는 문화적 산물이기도 했다. 본 논문은 문헌자료와 구술체록을 통해 용동권번의 설립 과정과 규모, 역할, 출신 예인의 활동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일제시대 인천의 공연예술 동향을 파악하고, 인천의 문화지형을 그리는 데도 하나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를 위해 당시 정부기록과 용동권번의 정관(定款), 신문과 잡지 등 다양한 문헌을 검토하였다. 문헌자료가 지닌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용동권번

103) 李泰運, ‘朝鮮妓生에게 謁見한 中國巡洋艦이야기’, 『별건곤』 제 42호, 1931.

에 대해 증언해줄 수 있는 인천 출신 문학인·예술인과의 대담, 현재 용동에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인터뷰, 현장 조사 등을 광범위하게 병행했다.

그 결과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동권변은 1901년의 소성권변을 전신으로 하며, 인화권변, 인천권변 등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용동 기생들은 요릿집 등에서 가무를 통해 유흥을 북돋우고 화대를 받아 생계를 잇는 생활인이었지만 인천 지역 사회와도 일정 부분 관련을 맺고 있었다. 먼저 물산장려운동 및 민족주의 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의연금 모집활동을 벌였다는 기록이 눈에 띈다. 인화보통학교 운동장 확장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음악회, 인천 제2공립보통학교 설립비를 조달하기 위한 연주회를 개최했고, 인천 애관의 활동사진대회에 찬조 출연하였다. 용동 기생의 사회 활동에 대한 기록이 중앙 일간지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당시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리라 추측된다. 인천의 기생은 세금과 임금에 대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근대적 시민이자 노동조합원으로서의 행동도 보였다. 용동권변의 공연 레퍼토리는 연극, 창가, 연주 등이었으며, 다른 권변에 비해서 연극공연의 특성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용동권변은 초기 한국 대중예술계에 유명 스타를 배출하기도 했다. 배우 북혜숙, 가수 이화자, 명창 이화중선, 배우 유신방 등이 대표적 예이다. 이들 중 일부는 용동권변에서 재능과 미모로 유명세를 타다가 캐스팅 되었으며, 혹은 이미 알려진 배우였으나 경제적 여건으로 권변에 들어오기도 했다. 기예(技藝)를 갖춘 이들 여성과 당시 인천의 부호, 유명인사들이 교류하면서 인천 지역에 각종 소문과 흥밋거리를 제공했다고 한다.

현재 용동거주 주민들은 대다수가 외지 출신이라 권변의 역사와 존재에 대해 아는 이는 극히 소수였다. 심지어 용동 지역축제인 큰우물제의 개막식 연설에서 한 공무원이 “용동우물 일대는 권변이었는데 이는 전국에서 첫 번째로 번지수(番地數)가 생겼다는 뜻이다.”라고 잘못된 설명을 하기도 했다. 즉, 해당 지역에서조차 용동 권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와 상식이 공유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용동 큰우물제는 인천광역시 중구가 지역문화 전승발전과 향토문화 보전을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대동굿과 국악한마당을 통해 노인, 상인 등이 어우러져 동네 전체가 흥겨운 마당이 되도록 조성하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전국적으로 지역축제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특성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기생과 권변문화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권변을 퇴폐와 향락의 산물로 취급하지 않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남원 춘향제’¹⁰⁴⁾, ‘진주 논개제’¹⁰⁵⁾ 등은

교방문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매년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이외에도 각 대학과 문화단체가 근현대 문화의 중요한 자료로써 기생을 주제로 전시를 개최하는 등 아카이브 구축에 나서고 있다.¹⁰⁶⁾ 반면 인천 용동권번은 규모와 영향력 등에 비해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애국운동과 학교 후원행사 등으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한 것 외에도 유명 예술인이 거쳐 갔고,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용동 큰우물과 장소를 공유하는 등 많은 특성에도 불구하고 조명을 받지 못하였다. 용동권번이 인천의 문화와 역사의 한 부분으로 분명 존재했던 이상 보다 올바른 정보와 인식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논문은 이제까지 연구가 전무한 분야였던 인천 용동지역의 권번을 대상으로 하여 설립과 규모, 활동, 사회적 기능과 영향, 출신 유명 예술인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권번 일대가 문화, 예술사적 중심부가 아닌 소외지역이었기에 관련 문헌기록을 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인천의 지역적 특성 상, 주민 이동이 빈번하고 이주민 비율이 높기에 현지 토박이들을 만나 증언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간신히 접촉하게 된 구술자 역시 고령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채록을 진행시키지 못했다. 이상의 이유로 문헌자료와 채록대상을 충분히 수집하지 못한 점을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하고 싶다. 향후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인천 토박이들을 대상으로 보다 장기적인 현지조사와 구술채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이 지닌 미비한 점에 대한 보완과 후속 연구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최종원고제출일 : 2006. 11. 1

원고심사일 : 2006. 12. 20

주제어 : 일제시대, 인천, 용동, 권번, 기생, 복혜숙, 유신방, 이화중선, 이화자

- 104) 춘향과 이도령의 아름다운 사랑과 정절, 잘못된 사회상에 항거하는 불굴의 정신 등을 선양하고자 열리는 축제이다. 남원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사랑을 주제로 한 한국최고의 전통문화축제가 문화관광축제 중 하나로 꼽힌다. 역대 춘향전 영화상영, 사이버 춘향제, 춘향 캐릭터 상품 판매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 105) 임진왜란 때 진주성전투에서 순국한 논개를 비롯한 7만 민·관·군의 넋과 충절을 기리는 축제이다. 매년 5월 넷째 주 금, 토, 일 3일간에 걸쳐서 진주성에서 개최된다. 진주정신의 현대적 계승과 진주역사의 재인식을 통해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역전통예술·문화의 우수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의암별제, 진주검무, 강령탈춤 등 본 행사 프로그램 외에도 교방문화와 규방공예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인기를 얻고 있다.
- 106) 기생과 관련된 아카이브즈(사진첩, 사진엽서, 신문, 잡지, 포스터 등)와 공연(무용, 국악) 등을 통해 기생이란 존재를 시각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다.

<참고문헌>

■ 1차 자료

- 신문
『매일신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 『시대일보』, 『황성신문』, 『대한매일』, 『인천일보』, 『월간굿모닝인천』
- 잡지
『개벽』, 『동광』, 『신여성』, 『삼천리』, 『長恨』, 『별건곤』, 『신동아』 (564호), 『씨네21』 (411호), 『굿모닝 인천』
- 단행본
『조선미인보감(朝鮮美人寶鑑)』 (조선연구회, 1918)
- 백과사전
『두산동아 백과사전』,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 논문 및 저서

- 가와무라 미나토, 유재순 옮김, 『말하는 꽃 ‘기생’』 (서울: 소담출판사, 2002)
- 곽차섭, 『미시사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2000)
- 권도희, 「20세기 기생의 음악사회사적 연구」, 『한국음악연구』 Vol. 29, No. 1, (한국국악학회, 2001)
- 권행가, 「일제시대 우편엽서에 나타난 기생 이미지」, 『미술사논단』 12호(서울: 한국미술연구소, 2001)
- 고설봉 증언, 장원재 정리, 『증언연극사』 (서울: 도서출판 진양, 1990)
- 고설봉, 『이야기 근대연극사』 (서울: 창작마을, 2000)
- 고 일, 『인천석금(仁川昔今)』 (경기문화사, 1955)
- 곽수룡, 「일제하 가곡과 대중가요 가사의 문학적 고찰」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국사편찬위원회, 『일제침략하 한국 36년사』 4권
- 김승현 · 한진만, 『한국사회와 텔레비전 드라마』 (서울: 한울, 2001)
- 김양수, 『인천개화백경』 (화인재, 1998)
- 김연희, 「일제하 경성지역 카페의 도시문화적 성격」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 김영희, 『2003 한국근현대예술사구술채록연구시리즈: 김천홍』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3)

『인천학 연구』 6(2007. 2)

- 김영희, 『2005 한국근현대예술사구술채록연구시리즈: 이매방』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5)
- 김재희, 「1950년대말-60년대 한국영화에 나타난 도시성과 근대성」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주영, 「근대 한국 춤 형성에서의 외래 춤 도입과정과 그 변모양상에 관한 고찰」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김진송, 『서울에 판스홀을 허하라』 (서울: 현실문화연구, 1999)
- 김창배, 「지역사회와 향토음악/ 개항 100년」, 『월간 FM』, 1976. 6
- 김태수, 『꽃가치 피어 매혹케하라(신문광고로 본 근대의 풍경)』 (서울: 황소자리, 2005)
- 김효정, 「일제강점기 조명암의 대중가요 가사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1)
- 노동은, 「식민지 근대화와 신여성-최초의 여가수 윤심덕」, 『역사비평』, 1992 여름호.
- 류덕희 외, 「식민지 시대와 광복 이후의 한국음악의 동향-음악교육을 중심으로」, 『광복 50주년 기념 논문집』, 광복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편), 한국문화진흥재단, 1995
- 문애령, 『한국현대무용사의 인물들』 (서울: 눈빛, 2001)
- 박 황, 『창극사연구』 (서울: 백록출판사, 1976)
- 백성희, 『예술가의 삶』 (서울: 혜화당, 1994)
- 박록주, 『나의 이력서』 (<http://www.parknokju.com>)
- 박용구, 「노래는 세월따라 -1920년대부터 현대까지」, 『객석』, 1984년 9월호
- 서지영, 「식민지 시대 카페 여급 연구」, 『한국여성학』 제19권 3호(한국여성학회, 2003)
- 서지영, 「식민지 시대 기생연구— ‘기생조합’의 성격을 중심으로」 (II),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0권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6)
- 성기숙, 「일제강점기 권번과 기생의 전통춤 연구」 (서울: 한국민속학회 추계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고려대학교, 2001)
- 손미자, 「映畫史的 側面에서 본 韓國女俳優 研究」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1)
- 손정목, 『일제 강점기 도시 사회상 연구』 (서울: 일지사, 1996)
- 송규진, 변은진 외, 『통계로 본 한국근현대사』 (서울: 아연출판부, 2003)
- 송문숙, 「진주권번의 춤과 인물에 관한 고찰」, 『한국체육철학학회지』 제8권 제2호(한국체육철학학회, 2000)

- 송방송, 「경성방송국에 출연한 예기들의 공연활동」, 『관재 성경린선생 구순 기념-국악학논총』 (서울: 은하출판사, 2000)
- 「신민요가수의 음악사회사적 조명-권변 출신의 여가수를 중심으로」, 『낭만음악』 (제14권 제3호, 2002년 여름호, 2002)
- 송연옥, 「대한제국기의 기생단속령 창기단속령- 일제 식민화와 공창제 도입의 준비과정」, 『한국사론』 40호(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8)
- 신명직, 『모던보이 경성을 거닐다』 (서울: 현실문화연구, 2003)
- 신현규, 『꽃을 잡고』 (서울: 경덕출판사, 2006)
- 안종화, 『신극사이야기』 (서울: 진문사, 1955)
- 양학연, 「近代史에 나타난 新舞踊의 動向」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 오명환, 『텔레비전 드라마 사회학』 (서울: 나남, 1994)
- 오현화, 「예단 일백인을 통해 본 기생집단의 성격」 『어문논집』 (민족어문학회, 2004)
- 유민영, 『한국연극운동사』 (서울: 태학사, 2001)
- 이경민, 『기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서울: 사진아카이브연구소, 2005)
- 이난향, 「명월관」,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중앙일보
- 이노형, 『한국 전통 대중가요의 연구』 (울산: 울산대학교 출판부, 1994)
- 이미경, 「1930년대 대중음악의 사회사적 연구: 유통구조별 고찰을 중심으로」,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이숙희, 『2004 한국근현대예술사구술채록연구시리즈: 김수악』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4)
- 이순진, 『2004 한국근현대예술사구술채록연구시리즈: 황정순』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4)
- 이영미, 『2004 한국근현대예술사구술채록연구시리즈: 반야월』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4)
- 이원경, 『연극연출론』 (서울: 현대미학사, 1997)
- 이유선, 『한국양악백년사』 (서울: 음악춘추사, 1985)
- 이재욱, 「1930년대 기생의 음악활동 고찰」, 『한국음악사학보』 30집(한국음악사학회, 2003)
- 송혜진 · 이승연, 「2004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연구시리즈: 전황」,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4
- 이승연, 「일제시대 대중음악과 한국인의 생활문화 : 1926년에서 1945년까지의 인기곡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인천학 연구』 6(2007. 2)

- 이승연, 『2005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연구시리즈: 목계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5
- 이영미, 『한국대중가요사』 (서울: 시공사, 1998)
- 이영미, 『홍남부두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서울: 황금가지, 2002)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편, 『한국여성관계자료집 근대편(하)』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0)
- 인천발전연구원, 『한권으로 읽는 인천』 (인천발전연구원, 2005)
- 임종국, 『밤의 일제 침략사』 (서울: 한빛문화사, 2004)
- 장사훈, 『여명의 동서음악』 (서울: 보진재, 1974)
- 장유정, 「20세기 초 기생제도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 장유정, 『1930년대 기생의 음악활동 일고찰』, 민족문화논총(제30집)
- 전 옥, 「눈물의 여왕, 전옥 일대기」 1-3, 『주간여성』, 1969. 10/29, 11/5, 11/12.
- 정선영, 「일제하 조선 내 공창제 도입과 매매춘」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정요섭, 『한국여성운동사』 (서울: 일조각, 1974)
- 조우성, 『20세기 인천문화생활연표』 (인천: 인아트, 2005)
- 조 우, 『인천이야기 100장면』 (인천: 한아트, 2004)
- 조한욱, 『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 (책세상, 2000)
- 정종화, 「한국영화 성장기의 토대에 대한 연구 :동란기 한국영화 제작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02)
- 정혜경, 「한국의 구술자료관리현황—한국역사기록의 관리와 발전방안」, 학술심포지엄 발표문(한국역사연구회, 대전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공동주최), 2000
- 차범석,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4회), 『한국연극』, 2000. 1-4.
- 최재용, 『월미도가 달꼬리라구』 (인천: 다인아트, 2003)
- 최창봉·강현두, 『한국방송 100년』 (서울: 현암사, 2000)
- 최혜진, 『이화중선의 생애와 예술성』 (판소리학회, 2003)
-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문화연구의 방법론 모색 :구술사적 접근을 중심으로』, 제6차 워크샵자료집, 1999.12.11
- 한국민중사연구회 편, 『한국민중사 III』 (서울: 풀빛, 1986)
- 한국정문연 한민족문화연구소 편, 『내가 겪은 해방과 분단』 (서울: 선인출판사, 2003)
- 한혜리, 「개화기 이후 한국무용의 주제와 사상」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1)

■ 기타자료

○ 인터넷 사이트

가요 114(<http://www.gayo114.com>)

구술로 만나는 한국예술사(<http://oralhistory.arko.or.kr>)

인천문화재단(<http://www.ifac.or.kr/>)

인천시청(<http://www.incheon.go.kr>)

인천중구청(<http://www.icjg.go.kr>)

인천학연구원(<http://www.isi.or.kr>)

○ 면담 자료

정범태 면담 자료(2005년 3월 5일)

김윤식 면담 자료(2006년 8월 19일)

김양수 면담 자료(2006년 10월 20일)

인천 주민 면담 자료(2006년 9월 9일, 9월 16일, 10월 9일, 10월 21일)

<ABSTRACT>

A Study on Incheon “Yongdong Kwonbun” in the Colonial Period

Lee, Seung-Yeon · Song, Ji-Yeong

This study tries to understand modern culture and to analyze Yong-dong Kwonbun of colonial time in Incheon. It will then find out the meanings of Kwonbun in Incheon region. Incheon, the port city, was the area of acculturation where received continuous incomings of other culture since the opening of the port. Particularly, the port was successful in the colonial period since the rice merchants around the country came to the port that import and export rice. Unsurprisingly, the area grew as a center of consumption and leisure culture. Investigating the process of organizing Yong-dong Kwonbeon, and comparing with other Kwonbeons, We paid attention to its contents of education 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for artistic accomplishments. We also focussed on high-class restaurants and places for performance where are Gisaengs' main stage of activity in that period. Futhermore, We studied what kind of relationship had been made between Gisaengs and local society. We expected that my study could grasp the facts of Kwonbeon in Incheon province and, at the same time, give us understandings of cultural peculiarity in Incheon.

As the method of study, paper records were examined such as government records of colonial periods,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Kwonbun, newspaper articles, and magazine articles. To supplement the limits of paper records, interviews with people who can speak about Yong-dong Kwonbun were followed. Writers, artists, and people who are currently living in Yong-dong were interviewed, and on-site research was also take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Yong-dong Kwonbun changed its name from Soseong Kwonbun in 1901 to Inhwa Kwonbun, and to Incheon Kwonbun. Yong-dong Kisaeng were people who lived by earnings after singing and dancing at the places such as restaurants. However, they were also partly related to Incheon society. The records showed that they participated in Mulsanjangnyeoundong(the regional product supporting movement) and nationalist movement, and gave fundraising for the society. They held a concert to collect funds to enlarge the In-hwa elementary school playground. They also held a fundraising concert for Incheon 2 public school establishment. They appeared as guest artists at the Incheon Aegwan Movie Contest. The fact that their social activities can be found on the major daily newspapers show that they produced social influence with meanings.

Yong-dong Kwonbun produced famous pop-culture star in the early days. Actress 복혜숙, pop singer 이화자, traditional singer 이화중선, actress 유신방 were all from Yong-dong Kwonbun. Some of them were cast after they achieved popularity with talent and beauty at Yong-dong Kwonbun. Some popular actresses, on the contrary, came to Yong-dong Kwonbun due to financial reasons. The relationship of those artistically talented women with Incheon riches and celebrities at the time created various gossips, and aroused public interests.

Currently, there were only few Yong-dong residents who knew about the history or the existence of Kwonbun since they were mostly came from other areas. What is worse is that the government officials made incorrect explanations about Kwonbun to the general public at the Yong-dong regional festival, and thus spread the distortions of the history. The accurate information and awareness of Yong-dong Kwonbun are needed since it is part of Incheon's culture and history. It must not be viewed simply as a decadent customs.

Given that almost no research on Yong-dong Kwonbun has been taken previously, this paper is meaningful to be the first comprehensive study observing various aspects such as foundation, size, activities, famous artists affiliated with Kwonbun, and social function and effects.

『인천학 연구』 6(2007. 2)

Yet, the fact that there were very limited paper records since it was not about Seoul area, and that there were not many interviewees who can distinctively remember the past are the limits of this paper. By studying oral history in a broad sense with Incheon natives in the future, and by the long-term fieldwork, the paper will be complemented. This will be left for the future research.

Key words : Incheon, Yongdong, Kwonbun, Colonial period, Kisaeng

【부록】

합자회사 인화권번 정관

제 1 장 총 칙

- 제1조: 본 회사는 합자회사 인화권번이라 부른다.
- 제2조: 본 회사는 다음과 같은 영업을 목적으로 한다.
 - 1)기생권번업
 - 2)기생양성 및 기예 향상
 - 3)앞의 각항에 관한 일체의 사업 및 투자
- 제3조: 본 회사 본점을 인천부에 둔다.

제 2 장 사원 및 출자

- 제4조: 사원의 씨명주소와 그 출자의 종류가격 및 자본책임은 다음과 같다.
 - 인천부 용리 206번지 일금삼천원 무한 김명근(金命根)
 - 인천부 외리 150번지 일금팔백원 유한 최춘호(崔春浩)
 - 인천부 용강정 53번지 일금구백원 유한 김수업(金壽業)
 - 인천부 외리 95번지 일금팔백원 유한 원성일(元成一)

제 3 장 업무집행과 회사대표

- 제5조 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한다,
- 제6조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보수는 사원의 과반수로써 별도로 정한 ***이다.¹⁰⁷⁾

제 4 장 계 산

- 제7조 본 회사의 결산시기는 매년 유월 말일에 한번 한다.
- 제8조 업무집행사원은 결산기말을 위해 계산을 하여서 사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107) *** : 해독이 불가능한 부분

『인천학 연구』 6(2007. 2)

- 1. 영업보고서
 - 2. 재산목록
 - 3. 대차대조표
 - 4. 손익계산서
 - 5. 손익금 처분에 관한 안건
- 제9조 본 회사는 기 출자 총액의 1/4에 해당하는 이익을 배당하여 매 준비금으로써 그 이익의 5/100 이상을 적립하는 것으로 한다.
- 제10조 각 사원의 손익분배의 비율은 제 4조에 기재된 출자액에 따라 지급한다. 단 유한책임사원의 손실 부담은 출자액에 그치는 것으로 한다.

제 5 장 부 칙

- 제11조 사원은 상법에서 정한 퇴사사유 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해 퇴사할 수 있다.
1. 사원이 치옥¹⁰⁸영업을 폐하는 것.
- 제12조 본 회사에 있어 과반수는 지분 가격의 과반수로 한다.
- 제13조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모두 법령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우(右, 우측) 합자회사 인화권번 창립을 위해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각 사원에게 기명조인을 받는다.

소화11년(1936년) 1월 15일

김명근(金命根)

최춘호(崔春浩)

김수업(金壽業)

원성일(元成一)

108) 置屋(おきや)포주집. 기생·창녀를 두어 요릿집·찻집 등에서 손님이 청할 때 보내주는 집